

한국경제

hankyung.com

2007년
3월7일
수요일



제13697호 47판

대표전화 (02)360-4114

Market Index (6일)	
코스피지수	1402.93 (+26.78)
거래량	2억3921만주
거래대금	3조97억원
코스닥지수	601.96 (+7.93)
거래량	7억1319만주
거래대금	2조1395억원
환율 (원·달러)	947.70 (-3.70)
원·엔(100엔당)	814.39원
원·유로	1242.91원
국고채금리(3년물)	4.83 (+0.02)
5년물	엔4.85%
10년물	엔4.96%



Briefing

4월부터 후보제로 모델별 차등화
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보험료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해 각 차량의 모델별 등급(1~11등급)을 손해보험사에 6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배기량이라도 등급에 따라 자차 보험료는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차량 1대당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63만2000원이며, 이 가운데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차 보험료는 모델에 따라 평균 3만1600원(±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5면

상권 대예부 / 대구 수성구	A20면
중기청·인경 자영업 무료 컨설팅	A21면
안전경제자유구역을 가다	A23면
해외펀드	B1~8면
내집마련 가이드	C1~8면

國內唯一의 最新施設
CHOIL
高級 알미늄板
年 160,000톤
生産増設完了

大邱 (053)856-5252(代表)
(053)856-5777(代表)
서울 (02)540-3481(代表)
Http://www.choilal.co.kr

제주마리나공공요금
(064)746-6161(代表)

LG전자 대졸임금 8년만에 동결

삼성전자는 인상률 2.25%로 역대 업계 확산 주목

삼성전자가 올해 대졸 사무직 직원의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특히 과장급 이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깎였다. LG전지도 외환위기 이후 8년 만에 대졸 사무직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1월 남용 부회장과 장석준 노조위원장이 일제갑차 임금 인상 자제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A4면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빅3 기업인 이들 두 회사가 올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함에 따라 재계의 올해 임금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5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초과급 이상 1.7% △대리급 이하 2.8%의 사무직 직원 임금 인상 기준을 확정했다”며 “따라서 사무직 전체 직원의 평균 인상률은 2.25% 수준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사무직의 평균 임금 인상률 2.25%는 경흥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4%보다 낮은 것이며, 지난해 물가상승률(2.2%)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다만 생산직은 5% 선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대졸 임금 수준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무직은 동결하되 생산직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 등을 반영해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올해 의료비, 주거 지원, 위락시설(콘도) 이용 등 복리후생비와 출장비 숙박비 등 각종 경비도 동결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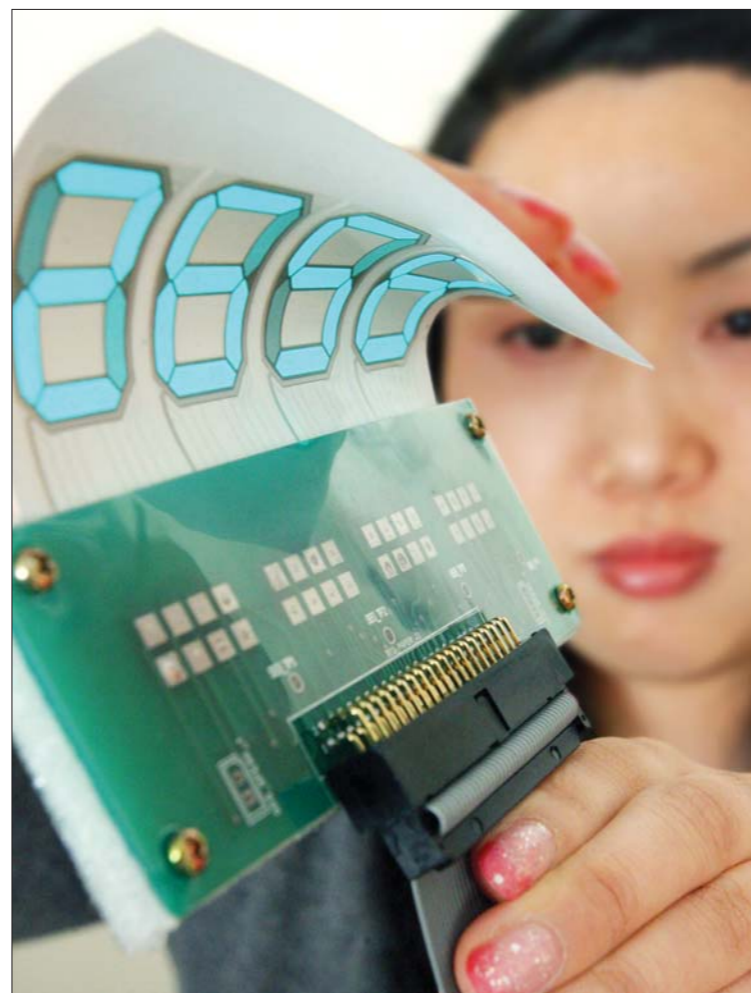
LG전자는 남용 부회장과 장석준 노조위원장이 지난 1월13일 노경(勞經) 단합 등담대화에 앞서 노경협의회를 열고 올해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졸 사무직의 임금은 동결하고, 생산직은 2.7%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 연말에 팀별, 개인별 성과를 측정해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자랑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휴대용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의 내외부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또 국내 대기업들이 매년 생산성을 웃도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반복해 왔다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임금 동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석 기자 yocool@hankyung.com



종이 디스플레이 세계 첫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이택민 박사는 빛을 내고 소리까지 들려주는 종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디스플레이는 값싼 종이 위에 인쇄하는 방식이라 한 번 보고 버릴 수 있는 TV나 전자책 등 '회용 전자기기 시대'를 앞당길 전망이다. ▶관련기사 A16면 / 대덕·허문환 기자 sweat@hankyung.com

아시아증시 일제히 반등

반발매수세 코스피 상하이 지수 2% 가까이 올라

코스피지수가 급락세를 멈추고 강하게 반등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도한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A3, 26면

6일 코스피지수는 26.78포인트(1.95%) 급등한 1402.93으로 마감하며 14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1.33% 올랐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국내 기관과 개인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선 결

과로 보인다. 전일 3% 넘게 급락했던 일본 닛케이가 평균주가가 1.22% 반등한 것을 비롯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증시가 1~2%대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에서 팔리는 차이나 펀드가 많이 투자한 홍콩 H지수도 3.57% 올랐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97% 오르는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날 상승은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기술적 반등이며 본격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선 선부르다고

분석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중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미국 모기지론 부실, 엔캐리 트레이드(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 고수익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 청산 우려 등의 약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종태 기자 jitchung@hankyung.com

구독신청 (전국) 1577-5454

바가지 병원 특진료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들의 ‘바가지’ 특진료 조사에 착수한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한국경제TV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환자들은 일반 진료와 특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병원들이 대부분의 의사를 특진 의사로 지정해 일반 진료의 선택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중현 기자 scream@hankyung.com

社告

미카스 로저스 미퍼듀대 교수	매튜 팔라칼 미인디애나대 교수	나카지마 다쓰오 도호세대 교수	알레시오 베치니 이피사대 교수
우예원 벨루르 IT IT 교수	다카오카 다다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 교수	신은운 서울대 교수	황규영 KAIST 교수

세계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11-15일 코엑스 해외전문가 370명 참석

한국경제신문사는 미국컴퓨터학회(ACM),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실과 공동으로 ‘세계컴퓨터 과학자 대회-응용컴퓨팅 심포지엄(SAC 2007)’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이버 컴퓨팅법률 수사 분야의 마커스 로저스, 컴퓨터 보안 분야의 매튜 팔라칼, 센서 네트워크 분야의 나카지마 다쓰오,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의 알레시오 베치니, 자동컴퓨팅 분야의 우예원 벨루르,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의 다카오카 다다오 교수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 370명이 참석, 새로운 컴퓨팅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전문적인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시 3월11일(일)-15일(목)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주요 발표내용 인공지능, 자동컴퓨팅, 바이오인포매틱스, 의료 및 법률 시스템에서의 컴퓨터 응용, 범죄과학수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보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소프트웨어공학,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기술 등 응용 컴퓨팅 분야의 40개 트랙

◇대학생·일반인을 위한 강좌 11일(일)-보안 강화 라눅스 및 유사상 검색, 웹은블로그인어 개발과 추론 등 4가지 튜토리얼

◇등록: 현장 또는 홈페이지 신청 (www.acm.org/conferences/sac/sac2007) ◇문의: 서울대 컴퓨터연구실 (02) 880-7297

주최: 서울대학교 미국컴퓨터학회

주택법 사학법 처리 무산

3월 임시국회 열어 재논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다시 논의하자고 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 밤늦게까지 대치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합의 존중을 이유로 직권 상정에 반대, 본회의는 79개 안건을 처리한 뒤 자동 유회했다.

국민연금법과 출자총액제 완화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관한 법 등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마치지 못해 이날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다시 논의하자고 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 밤늦게까지 대치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합의 존중을 이유로 직권 상정에 반대, 본회의는 79개 안건을 처리한 뒤 자동 유회했다.

국민연금법과 출자총액제 완화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관한 법 등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마치지 못해 이날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우리 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두알, 우리 가족의 힘- 베콤씨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료 무료) • 부산 (051)462-4973 • 대구 (053)752-0515 • 광주 (062)332-5400 • 대전 (042)627-9003 * 약의무 부칙을 신고를 시행합니다. (02-380-1556 www.kdta.go.kr) 본드: 회사 차익을 높이고 세무상의 부당이익을 줄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hankyung.com

2007년
3월12일
월요일



제13701호 47판

대표전화 (02)360-4114

Market Index (주간)

코스피지수	1423.58	▲9.11
거래량	2억4783만주	
거래대금	3조1932억원	
코스닥지수	613.41	▲6.42
거래량	6억9275만주	
거래대금	2조435억원	
환율 (원·달러)	945.90	▲2.80
원·엔(100엔당)	805.50원	
원·유로	1244.05원	
국고채금리 (3년물)	4.80	▲0.06
5년물	엔4.83%	
10년물	엔4.93%	
* 중시 거래량·대금: 하루 평균치임		

당신의 성공 파트너 우리투자증권



일본 닛케이	17,164.04(-53.89)
홍콩恒生	19,134.88(-307.13)
유가(WTI)	60.05달러(-1.59)

Briefing

미국 서머타임

미국 동부시간 11월 새벽 2시 → 3시
(한국시간은 11월 오후 4시)

美 서머타임 시작

미국이 11일(현지시간)부터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에 들어갔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1월 오전 2시가 3시로 1시간 늦춰졌고 한국과 뉴욕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에너지 절약에 위해 예년보다 3주 앞당겨 서머타임을 적용했으며 끝내는 시점도 11월 첫 번째 일요일로 1주일 늦췄다. 유럽의 서머타임은 이전처럼 3월 마지막 일요일인 25일부터 시작된다.

월요일인터뷰

박원수 정원시장
A16면

월요머니 B1~8면
트래블 C1~8면

고교생 경제 눈술 신문

생글생글 88호
독자는 신청서 무료 배발
구독문의 (02)360-4000 ssgsi.com

구독신청 (전국) 1577-5454

IT 더이상 성장동력 아니다

韓銀 보고서 부품 소재 여전히 취약 고용창출 갈수록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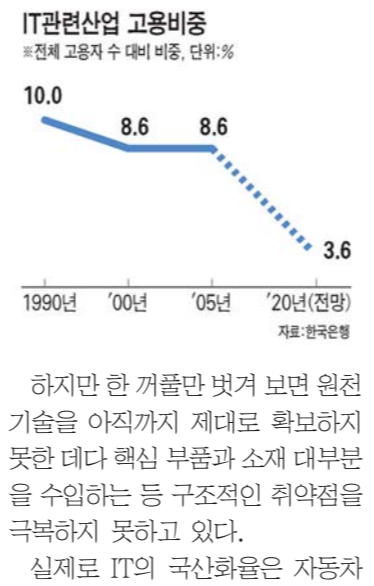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정보기술(IT) 산업은 성장동력으로서 한계에 부딪혔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서둘러 발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IT산업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6년 뒤에는 큰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이근희 삼성 회장의 최근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1일 내놓은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한국 IT산업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IT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고 △인터넷 강국이지만 전자 생산 혁신 측면에서는 IT 활용도가 미흡한 데다 △생산·고용·소득 창출원의 역할이 갈수록 떨어지고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IT산업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15.9%로 국내총생산(GDP)의 10.9%(2005년 기준), 수출의 34.8%(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IT산업의 부가가치·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한국의 IT 투자 비중(총고용자 대비)은 1999년과 2000년 40% 수준에서 최근 15% 선으로 떨어져 미국(33.2%) 스웨덴(26.6%) 호주(22.6%) 영국(21.8%) 등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인터넷 게임은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전자상거래 등 기업들의 활용도는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기업들의 IT 활용도가 낮아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동네 통장도 구조조정 전자행정 활성화로 업무 대폭 축소

동네 통장(統長)이 사라지고 있다.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e-거버넌스’ 등 온라인 행정을 통해 직접 대민(對民)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통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도 주요 요인. 동(洞)의 하부 조직으로 정책 홍보, 민원 수렴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해온 통장이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1173명인 통장을 내년 말 650명 선으로 절반 가량 감축하는 조례를 지난달 12일 확정, 고시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유비쿼터스형 전자행정이 구현되면서 민원 수급이 주 목적인 전통적 통장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연간 20여억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는 1999년 통장직을 무급제로 전환, 7년간 123억원을 절감한 데 이어 올해는 아예 777개에 달한 통 수를 401개로 37%가량 줄였다. 송파구도 아파트 지역의 통장 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저 연령 제한을 없애 활동적인 20대 통장을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장이 구조조정되면 통장 선거 과열 경쟁에 따른 잡음도 상당 부분 없어질 전망이다. 한 번 통장이 되면 최장 6년(기본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동안 활동이 가능한 데다, 상당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매년 통장 후보로 2-3

명씩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고시(考試)’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 통장 활동비는 매월 20만원 인콰이지만, 연간 200%의 특별상여금, 회의 수당(회당 4만원), 중 고생 자녀 학자금 등을 합치면 연간 3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통장 통합을 추세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통제 구조조정은 단위 지자체 통합과 사실상 같은 구조의 문제”라며 “올해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도 오피스텔 분양 열기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코오롱건설이 짓는 오피스텔 ‘더 프라이우’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11일 날씨가 추워지자 코트와 담요 등으로 무장한 채 12일 실시될 청약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모델하우스 앞에는 청약 대기자 수천명이 물려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소동을 벌였다. ▶관련기사 A23면 /양원모 기자 yoonmo@hankyung.com

‘세계 컴퓨터과학자 대회 개막

40여국 4000여명 참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컴퓨터 과학 학술대회인 ‘세계 컴퓨터 과학자 대회-응용 컴퓨팅 심포지엄’이 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막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0여개 국가의 컴퓨터 분야 과학자 교수 학생 400여명이 참가, 컴퓨터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세계 컴퓨터 과학자 대회는 컴퓨터 분야 교수 연구원 등이 꼭 참석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대회로 지난 20여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신문사는 미국컴퓨터학회(ACM), 서울대 컴퓨터연구소, 수원대와 공동으로 이번 대회를 주최한다.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과 신승운 교수는 “이번 대회는 한국 컴퓨터 과학계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FTA 24일 이전 타결될듯

19일 워싱턴 연쇄 고위급 회담서 비달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오는 24일 이전에 타결짓기로 하고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수석대표-통상장관으로 이어지는 최종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11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이 같은 방안의 의견을 모으고 세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24일 이전에 협상 타결 시점으로 잡은 것은 이날 말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에 ‘비달’을 끝내려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TPA) 만료에

따른 협상 시한은 4월2일(한국시간)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12일 8차 협상이 끝나는 대로 국내 절차를 서둘러 마치고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최종 협상 패키지(최종 합의안)를 다루는 고위급 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기로 했다.

이 회담에는 미타결 핵심 쟁점 분

과인 자동차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와 관련 고위 관료(차관급) 등 20-30명이 참석한다. 농업의 경우 고위급 협상이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은 연쇄 고위급 회담에서 이견이 해소되면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정상회담을 거쳐 협상을 완전 타결짓게 되며 서울과 워싱턴에서 타결 사실과 내용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상류사회가 사는 아파트

3월 중 분양

32~87평형 총 1,000여 세대
분양문의 041) 577-0014

천안 동일하이빌

http://cheonan.hightvl.co.kr

부자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라

부자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한 책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별첨한 사람은 지저 앞기 위한 게임을 하지만, 부자들은 이기기 위한 게임만 한다. 부자가 위대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두 부자가 가르쳐주는 ‘금융 IQ’를 배우고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라!

기존의 '머니게임 공식'	새로운 '머니게임 공식'
부자 정보를 수집하라 절대 믿을 지지 대라 중지부터 모으라 확실하게 자축하라 위험을 분산하라 유능한 재무설계사를 찾아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부에 대한 통찰력을 가라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돈보다 시간을 먼저 확보하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투자하라 위험을 예측해서 집중투자하라 나만의 투자 공식을 찾아라 자신의 사업을 하라

세계적 거물급 두 부자의 만남으로 출간 전부터 전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2007년 최고의 화제작!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만남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성공적인 결합이다. 이 책은 돈을 벌고 부자라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돈과 부자의 세계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담고 있다. ▶리뷰기사 C16면

성실하게 저축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기요사키와 트럼프라는 두 거물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에 충분하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요사키와 트럼프는 전 세계가 주목한 ‘심각한 재정분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들 스스로 금융 IQ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합심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USA투데이

기요사키와 트럼프가 경제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책은 부를 얻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와 틀이 담겨 있는 ‘부자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 포스트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말하는 부의 공식

필리프 기요사키 | 도널드 트럼프 저 | 김재영 외 역 | 값 15,000원

한국 독자를 위한
특별부록 2가지 | 특별부록 1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수업 10강 (workbook)
특별부록 2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특별대담 (동영상 CD)

acm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개막일/리눅스 특별강좌

윈도비스타 혼란은 지나친 MS종속 탓

김학림 미이스트 스트라우드버그대 교수 주제발표



“컴퓨터 운영체제(OS)를 사람에 비유하면 리눅스는 속내를 드러내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윈도는 속내를 감추는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보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더 쉽지요. 리눅스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윈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OS입니다. 정부나 기업의 전산담당자들은 인식을 바꿔 리눅스를 쓸 필요가 있어요.”

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리눅스 특별강좌’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이스트 스트라우드버그 대학의 김학림 컴퓨터학과 교수(51)는 정부와 민간이 리눅스를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했다.

김 교수는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마이

크로소프트(MS) 운영체제(OS)만을 고집한 결과 한국 컴퓨터 환경이 지나치게 MS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윈도비스타 호환성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 포털 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전전긍긍하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엑티브X(실행 프로그램의 일종)를 토대로 실행한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라호마 대학에서 컴퓨터과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웹 보안 분야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테네시

대학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를 거쳤다. 김 교수는 이날 ‘보안 강화 리눅스’를 선보이며 윈도 못지않은 성능과 보안성을 자랑하는 리눅스를 소개했다.

리눅스는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에 필요한 설명서라 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일반에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다시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리눅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라 불린다.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전달할 때 “설치하시겠습니까?” 등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윈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윈도에서 프로그램이 멈추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MS에 문의하거나 전문 개발자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폐쇄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윈도에서는 이럴 경우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리눅스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 전산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됩니다. 반면 윈도를 쓰다가 문제가 생

기면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부에서 사람을 부르면 그만이니가 어떻게 보면 편하죠.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일단 편하니까 바깥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그가 소개한 보안강화 리눅스의 특징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리눅스와 다르다. 사용자마다 속성을 부여하고(Type Enforcement), 부여된 속성에 따라 접근 수준이 조절되며(Role Based Access Control) 이 수준에 따라 보안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병원을 예로 들면 의사 간호사 등으로 속성을 정해두면 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환자가 구별되고, 환자의 병력 등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의사 간호사별로 다르게 부여하는 식이다. 보안 강화 리눅스를 통해서도 컴퓨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번에 공개한 보안강화 리눅스를 계기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보안 기능이 취약하다’는 편견이 사라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이모저모

심포지엄 발표 논문 실시간으로 각국 전송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 교수와 학생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 현장에서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즈니스용에 마련된 컴퓨터를 이용해 자국 친구들에게 현지 상황을 전하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매튜 팔라칼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는 “5년 간 한 번도 빠짐없이 자비를 들여 대회에 참석했다”며 “컴퓨터 과학자 대회와 ACM(미국컴퓨터학회)은 전 세계 컴퓨터 연구자들의 집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생체인식 기술 분야가 전공인 그는 “인공지능과 생체인식공학을 연구 중인 과학자는 최신 논문을 빨리 읽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내년 브라질 대회에도 꼭 참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팔라칼 교수는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200-300명에게 행사 정보를 보내 공유한다”며 “참가자가 400명 안팎으로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전 세계 컴퓨터 학계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고 소개했다.



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컴퓨터과학자 대회' 참가자들이 컴퓨터 논문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지양문 중국 하이베이대학 수학과 교수는 “ACM은 전 세계에 7만5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며 “이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이 실린다는 것은 컴퓨터공학계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학회여서 참가 자체가 가슴벅찬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회 주제는 ACM 회원을 포함한 전세계 컴퓨터 과학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두가 된다”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 컴퓨터과학자들에게 전해진다”고 말했다. 또 “이런 권위 있는 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것은 아시아 학자로서 기쁜 일”이라고 축하했다.

독일 베를린 기술대학 재학생인 미하엘 야거 씨는 “리눅스 보안에 관심이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참석한 뒤 토요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이탈리아 브레시아 대학에 재학 중인 안토니오우군은 “현재 컴퓨터 범죄와 임베디드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다”며 “보안분야에 관

심이 많이 큰만큼 먹고 한국에 왔다”고 말하며 웃었다.

수원대 컴퓨터학과 4학년 학생인 반창성씨(27)는 “말로만 들던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기쁘다”며 “논문으로만 접하던 과학자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고기원 차장(팀장)/이희성/김보라/안상미/이미아/정호진/성선화/박민재/황정남 기자 dadad@hankyung.com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일정

12일(월요일)				
회의실	9:00-10:00	10:30-12:00	13:30-15:00	15:30-17:00
Room 1	데이터 스트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언어&구조	고급공간과 이미지 기반 정보시스템	
Room 2	(기조연설)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신	인공지능 컴퓨터 논리, 이미지분	의료시스템의 컴퓨터 응용	생물정보학
Room 3	합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	기하학적 제약과 논법	시스템온칩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지원
Room 4	조	멀티미디어 시각화	멀티미디어 시각화	공통적 방법론을 위한 신뢰, 추천, 근거 기반
Room 5		정보접근&검색	정보접근&검색	정보접근&검색
13일(화요일)				
회의실	9:00-10:00	10:30-12:00	13:30-15:00	15:30-17:00
Room 1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자동 컴퓨팅
Room 2	다큐먼트 엔진 아키텍처	다큐먼트 엔진 아키텍처	시스템분리 프로그래밍기법	컴퓨터 보안
Room 3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기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론, 기술, 애플리케이션
Room 4	모바일 컴퓨터와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컴퓨터와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컴퓨터와 애플리케이션	모델변환
Room 5	계약 해결 기법과 프로그래밍		에이전트 상호작용, 이동성과 시스템	
14일(수요일)				
회의실	9:00-10:00	10:30-12:00	13:30-15:00	15:30-17:00
Room 1	응용체제와 적용 애플리케이션	응용체제와 적용 애플리케이션	응용체제와 적용 애플리케이션	응용체제와 적용 애플리케이션
Room 2	(기조연설) 범죄학사회의 진화	시맨틱웹과 애플리케이션	시맨틱웹과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보안
Room 3		계산논리진화	신뢰적이고 적용적인 분산시스템	신뢰적이고 적용적인 분산시스템
Room 4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모델 변환
15일(목요일)				
회의실	8:30-10:00	10:30-12:00	13:30-15:00	15:30-17:00
Room 1	웹기술	웹기술	전자상거래 기술	소프트웨어 검증
Room 2	임베디드 시스템 스: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술	임베디드 시스템 스: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술	컴퓨터 언어 및 구조	시맨틱 기반 자원 탐색/검색/작성
Room 3	유버쿼터 컴퓨팅	컴퓨터시스템 구성공학	컴퓨터시스템 구성공학	현트드 컴퓨팅
Room 4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에이전트 상호작용, 이동성과 시스템	범죄과학사

컴퓨터과학자 대회는 세계 최고 컴 학술 한국, 아시아 첫 개최

세계 컴퓨터 과학자 대회는 미국컴퓨터학회(ACM:Association of Computer Machinery)가 매년 개최하는 컴퓨터 학술대회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컴퓨터 과학 논문이 ACM 심사를 통과해 발표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응용 컴퓨팅 심포지엄(SAC: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은 ACM 통과 논문을 발표하는 장이다.

세계 컴퓨터 과학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매년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올해 대회도 중국과 일본이 첫 아시아 개최를 놓고 한국과 다투었다. 한국이 최근 몇년 사이 과학논문 분야에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인 점이 대회 유치에 크게 작용했다. 이 대회는 20여년간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열렸다.

ACM은 1947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 학회다. 100여개 국가 7만5000명의 회원이 40여개 특수분야연구그룹(SIG)을 구성해 매년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SIG 가운데 응용 컴퓨터 그룹(APP)이 가장 크다. 문의:서울대 컴퓨터연구소 (02)880-7297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자 일본연수」 및 「일본전문가 초청 기술지도」사업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인재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기술인력 일본파견 및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술자 일본연수 (사업명: 지식산업기술연수)

- 연수분야: 제조업 및 서비스업
- 파견규모: 20명
- 신청자격: 국내 중견·중소기업 근무 기술자
- 연수기간: 2007. 7. 23 ~ 11. 10

기간	내용	비고
7. 23 ~ 8. 22	출국 / 일본어 연수	동경
8. 27 ~ 9. 21	기업 현장 연수(1차)	해당 기업체
9. 22 ~ 9. 27	일시 귀국(추석)	
9. 28 ~ 11. 10	기업 현장 연수(2차) / 귀국	해당 기업체 / 동경

- 연수경비: 400만원(한국측 연수경비의 20%)
- 모집마감: 3월 3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및 문의: 산업기술팀 이광재 차장
- TEL: 02-3014-9813 / FAX: 02-3014-9800
- E-Mail: kjlee@kjc.or.kr

일본 전문가 초청 기술지도 (사업명: 생산성향상기술컨설팅)

- 지도기간: 2007년 5월 중순 ~ 8월 하순 (실지도일수 1사당 4일)
- 지도규모: 7개사
- 신청자격: 하기 지도분야 해당 중소기업으로 상주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
- 지도분야
 - ① 기계조립·자동화 ② 프레스·금형기술 ③ 기계·금속가공
 - ④ 용접·열처리 ⑤ 전기·전자기술 ⑥ 사출·성형기술
 - ⑦ 기타 (센서·진동소음·분체기술·기계/설비/치구설계 등)
- 전문가 그룹: 전문가 1인, 통역 1인, 사무국 1인 등
- 기업부담금: 없음 (전문가 초청비 및 통역지원비 등 전체 주최 기관 부담)
- *단,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도에 따른 교통편(호텔-회사) 및 중식은 기업에서 제공
- 지도기업선발: 서류심사 및 양국재단 관계자의 후보기업 사전방문을 거쳐 최종 선발
- 모집마감: 3월 21일(수)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및 문의: 산업기술팀 이병국 과장
- TEL: 02-3014-9814 / FAX: 02-3014-9800
- E-Mail: bklee@kjc.or.kr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jc.or.kr>-모집안내)의 해당사업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 [접수처: (우135-821)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 한일재단빌딩 3F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산업기술팀]

■ 주최: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후원: 산업자원부 / 일본경제산업성

한국경제

hankyung.com

2007년
3월13일
화요일



제13702호 47판

대표전화 (02)360-4114

Market Index (12월)		
코스피지수	1441.33	▲+17.75
거래량	2억4505만주	
코스닥지수	619.62	▲+6.21
거래량	7억6115만주	
환율 (원·달러)	944.00	▼-1.90
원·엔(100엔당)	798.78원	
	원·유로	1239.00원
국고채금리 (3년물)	4.83	▲+0.03
5년물	연4.88%	
10년물	연4.96%	
당신의 성공 파트너		
우리카운셀링		
코스피지수 동향		
일본 닛케이	17,292.39(+128.35)	
홍콩恒生	19,442.42(+307.54)	

Briefing

주택공사가 열람 내일부터

자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이 14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903만 가구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가격과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시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6월13일까지 운영하는 '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 번호 없이 1577-7821)'로 연락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4월3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Law & Biz

B.H.W
www.bhw.co.kr

수처리 설비의 선구자!

- 정수
- 폐수 재이용
- 초순수

범한정수
TEL: 02-780-5156
FAX: 02-785-3484

구독신청 (전국) 1577-5454

6급 공무원 열정 함안 경제 살렸다

공단 조성은 기업특혜 아닌 우리가 사는 길 사표 써놓고 관련기관 설득 550여사 유치

이종섭 팀장 지역스타로

“공장을 짓기로 결정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의 얘기가 아니다. 경남 함안군 지역경제과 6급 공무원인 이종섭 팀장(49 사진)의 말이다. 시골 군청의 중간 간부가 과연 그럴 힘이 있을까. 2005년 초, 함안지역 상공인들은 교통 여건이 좋은 가연산에게 발지구에 공단 설립 계획을 세웠다.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주민들도 찬성했다.

工期 53개월 단축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환경 문제, 보상 문제 등의 난제가 수도룩했다. 당장 농업진흥지역을 공단으로 용도변경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농림부부터 “안 된다”였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주위의 충고도 있었지만 이 팀장은 단했다. 공단 조성은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함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뿐이었다. “공단을 짓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경남도청과 관련 중앙 부처를 수십 차례 찾아가다. 결국 10개월 만에 농림부의 용도변경 허가가 나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다 된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보상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가연지구”는 그렇게 착공 19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통상 72개월 정도 걸리는 민간 개발보다 공기를 무려 53개월이나 단진 것. 특히 분양가는 평당 25만원 선으로 45만원대인 민간 개발보다 20만원이나 낮았다. 조율이 좋은 만큼 기업들의 입주도 빠르기를 이뤘다.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550여 기업이 몰려들었다. 지난해 수출은 6억7000만달러(11월 말 현재)를 기록, 전년 같은

분양가 절반 낮춰

기간보다 59%나 증가했다. 해마다 1000명씩 줄어든던 인구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함안군 인구는 6만3916명으로 1년 사이에 2540명 늘었다. 이주 기업 직원을 겨냥, 지난해 10월 칠원GS하이 아파트(1794가구)가 첫 입주하는 등 지역 경제



HAMAN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종섭 기자 comeon@hankyung.com

도 활기를 띠고 있다. 공단 설립을 주도한 이 팀장의 별명은 “기업맨”. 기업에 골치 아픈 환경이나 토지보상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붙여졌다. “공무원 한 사람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지역 경제 회생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하성식 함안상의회장은)는 평가이기도 하다.

인구도 증가세 반전

A2면에 계속
함안(경남)-김태형 기자 hyun@hankyung.com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 이틀째인 12일 세계 각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KAIST 황규영 교수의 기초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김병연 기자 misaon@hankyung.com

IT 새 동력은 임베디드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은 ‘임베디드(제품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A8, 9면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컴퓨터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한국경제신문사와 미국컴퓨터학회(ACM), 서울대 컴퓨터연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 참석자들은 12일 한국 IT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과 교육’ 좌담회에 참석한 배트 브라이언트 미국 앨라배마 버밍햄대 컴퓨터 정보학과 교수는 “이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

는 전자제품이 없다”면서 “한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설계 인력을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성수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2003년까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기기가 80억개나 나왔다”면서 “2010년 160억개, 2015년 400억개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베디드 시스템 및 컴퓨터 공학 교육과 관련, 타이웨이웨 대만 국립대 전자컴퓨터공학부 부학장은 “대만은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베디드 교육 자금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개입해야 컴퓨터 분야에 고급 두뇌들이 몰린다”고 말했다. 신승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초빙교수는 “한국의 경우 공학도 평균 보수는 사회과학 전공자보다 적다”며 “5년쯤 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원 기자 dadad@hankyung.com

금감위가 자격없는 론스타 승인

감사원, 외환銀 매각관련 적절환 조치 요구

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월간 매각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감위가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기사 A5면 감사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 대주주 자격 하자 치유 등의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감위원에게 통보했다.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게 아니라 대주주로서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라며 “금감위가 실의 등을 따져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나 자격 하자 치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인 모건

스탠리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의 기업 가치가 최소 4106억원, 최대 1조5999억원이나 낮게 산정돼 팔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융감독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기관 주의를 촉구했다. 김용흥 기자 comeon@hankyung.com

송도 오피스텔 청약 중단 인파 몰려 은행접수 검토

코오롱건설이 12일 분양 신청을 받은 인천 송도지구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1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청약이 2시간여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A5면 코오롱건설은 이날 “당초 모델하우스 방문자들만 청약받기로 했으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낮 12시에 청약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분양 재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신문에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며 “청약 방식도 은행 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원 기자 sunee@hankyung.com

SK M-CITY 드라마파크 상업시설 분양공고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번지 "일산 SK M-CITY"
- 분양대상**
 - 일산 SK M-CITY 상업시설(SK M-CITY DramaPark) 지하1층 ~ 지상3층 총 36개 매장
- 분양가격**
 - 분양금액 및 세부임대 문의사항은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문의: 1566-5311, 031-817-9000)
- 분양방법 및 신청자격**
 - 분양방법: 신축은 수의계약
 - 신청금: 일천만원 (₩1,000,000원)
 - 신청금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 신청접수 장소: 분양사무실 1층, 무통장 입금
- MD구성 및 권장업종**
 - 지하 1층** 아이스링크, 패밀리레스토랑, 푸드코트,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스페이스, 게임장(마감입박)
 - 다양한 고객층의 편의, 만남의 장소, 무료 정보이용을 위한 인터넷 공간 제공
 - 푸드코트/밀키트/각종 엔터테인먼트/식당 등의 강종이 모여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윈스타 복합 쇼핑공간
 - 영 환경이 실내 모방미치온 초소으로 외관관객들도 찾아볼 수 있는 울드 드라이브
 - 지상 1층** 식음료점, 명품매장, 은행, 서점, 편의점, 안경점,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약국, 부동산(마감입박)
 - 일리니움 광장, 대명부수대성지, 녹디사생소형 동상, 소라미 거리, 민화갤러리 광국
 - 벽화점, 소문점과 차광제를 통해 증산승의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도랑 명동, 패스트푸드 및 판매시설
 - 보행차도우물 사재방 컨셉에 맞게 설계하여 세드강화 했으며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 지상 2층** 갤러리, 전문식당, 스튜디오, 미용실, 명품소품, 커피숍, 고급 식당가, 휘트니스센터, 피부관리실, 패스트푸드점
 - 종합편안 부민지 많은 대형 갤러리센터
 -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특급 프랜차이즈
 - 지상 3층** 브랜드 커피숍, 피자바, 호텔형 최고급 레스토랑, 스튜디오(분양완료)
 - 테라스의 유익한 테라스를 테이빙 설치
 - 일산 명소가 될 최고급 레스토랑

SK 엠시티 드라마파크 특· 장점

- ▶ 방송제작센터와 인접한 일산 상권의 핵
- ▶ 일산 호수공원과 맞닿은 쇼핑 문화공간
- ▶ 일산 최초 아이스링크! 끊임없는 고객 수요
- ▶ 일산은 물론 서울 서북부의 명소가 될 일산 최초의 스타 아이스링크가 드라마파크 안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임대료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신청금 및 입금계좌

신청금	입금 계좌
일천만원 (10,000,000원)	우리은행 1005-401-120074 예금주: KB 부동신산학

분양문의
1566-5311
KB 부동신산학

인주산업개발(주)
SK 건설

컴퓨터과학 교육 좌담회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법 의학보다 컴퓨터과학 중시해야 강대국

컴퓨터 사이언스(컴퓨터공학) 기술 수준이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시대다. 컴퓨터 없는 산업과 네트워크는 없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공학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12일 '컴퓨터과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를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미국 컴퓨터학회(ACM), 서울대 컴퓨터연구소, 수원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40여개 국가의 컴퓨터 전문가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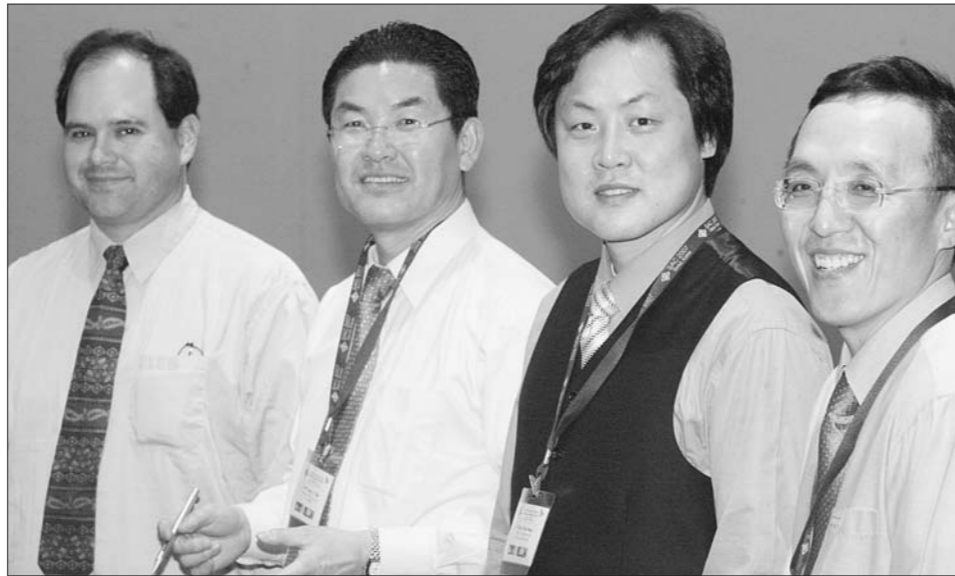
참석자

- 성창완 교수(미국 인디애나 대학 컴퓨터학과)
- 장성태 교수(수원대 컴퓨터학과)
- 배럿 브라이언트 교수(앨라배마 버밍햄대 컴퓨터 정보학과)
- 사회:신승윤 초빙교수(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신승윤 교수=과거에는 학문 영역이 주도적으로 산업을 이끌었죠. 그러나 지금은 산업이 학문 영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개발한 것을 이론화해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컴퓨터과학의 발달 속도에 교육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지 의문스럽습니다.

▶장성태 교수=한국은 빨리 변화하며 적응해 가고 있지요. 정보기술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한국은 IT 강국 아닙니까. 한국인은 빠른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지요. 문제는 학생과 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는 적고 학생은 많으니 가르치는 게 힘에 부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질적인 면입니다.

▶배럿 브라이언트 교수=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대학들은 구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로지 구직을 목표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며 이를 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을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기술변화를 따라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왼쪽부터 배럿 브라이언트 교수, 신승윤 교수, 성창완 교수, 장성태 교수. /허문찬 기자 sweal@hankyung.com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질

▶성창완 교수=컴퓨터공학 수준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당연히 교육이 뒤따라야 하지요.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나라의 미래는 근근이 먹고살 뿐 잘살 수는 없습니다.

▶신 교수=현재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브라이언트 교수=미국의 경우 2001년에 만든 커리큘럼을 그대로 쓰는 학교도 많습니다. 커리큘럼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죠. 산업보다 뒤처지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합니다.

▶신 교수=한국의 경우 공학도가 졸업 후 받는 평균 보수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받는 보수보다 적습니다. 포항강대 최우수 졸업자가 다시 의대로 편입한 이유죠.

▶브라이언트 교수=법학 의학은 서비스 분야에 속합니다. 반면 공학은 생산과 직결되는 분야지요. 강대국과 중진국의 차이는 이런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각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학

을 경의를 갖고 대해야 합니다. 중국 일본 대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한국은 더욱 긴장해야 하겠죠. 기술 전쟁의 시대입니다.

▶성 교수=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학 교육이 정도를 가야 하는데 현재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대학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트 교수=미국의 경우 어떤 시절 컴퓨터 과학을 배울 기회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에는 약 4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중 6개 고등학교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칩니다. 다른 고등학교들은 주로 컴퓨터 활용만 가르칩니다. 장의력이 없다는 얘기죠.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이 없어요.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배경지식도 없지요.

▶신 교수=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을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왜 어렵게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5명의 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의력이 없다는 얘기죠.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면 달랐을 겁니다.

▶신 교수=컴퓨터 사이언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주기 때문이죠. 시험문제는 잘 풀립니다. 40페이지짜리 수학문제를 줘도 다 풀어냅니다. 대개

석사과정에서 17% 정도의 학생만 과정을 통과합니다. 보통 한 학년에 40명이 들어오니 몇 명이 나 졸업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장 교수=한국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에 문제가 많습니다. 올바른 객관식 답을 고르는 훈련을 시킬 뿐이죠.

▶브라이언트 교수=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떤 것을 복사하고 베끼는 데만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다. 미국에서는 창의력을 중시하죠.

산업보다 뒤처지는 커리큘럼

▶성 교수=초·중·고교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졸업요건을 강화하려 해도 교육부의 상대평가 방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부 학생의 경우 수업을 따라올 수 없어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비전공자들에게 대한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이언트 교수=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제도는 어쩌면 실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이 없

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과학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니에요. 이라니 인문대나 사회대에 진학하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영영 모르게 되죠. 기령 법대를 나와 상원의원이 되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도를 만들 때도 해당 지식 없으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장 교수=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의 산업 수요가 적은 것도 문제죠. 경영자의 경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찾지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사람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차를 만드는 사람은 별다른 기가 없고 운전하는 사람만 인기를 끈다면 결국 차가 없어져 아무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대학서만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브라이언트 교수=1999년, 2000년에 '닷컴 붐'이 일 때 IT업계에서 영문과 졸업생을 뽑은 것으로 압니다. (웃음) 문과 계통 인맥이 필요하니까요. 컴퓨터 공학도들이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신 교수=요즘 인기를 끄는 마이스페이스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돈을 벌지만 구글은 현대와 같은 하드웨어 없이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것이 인도가 IT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면에서 한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한 국가라 하기 어렵죠.

▶브라이언트 교수=벌 게이츠가 지난 7일 미국 도이대로 가면 과학교육의 위기를 맞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과학분야 비교육이 점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소프트웨어 측면에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신 교수=우리 앞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시조차 못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 이틀째인 12일 한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통합 세션이 끝난 후 각국 컴퓨터 과학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병민 기자 misaon@hankyung.com

12개 전문분야 논문 발표 지능화된 웹 검색 멀티미디어 시각화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 이틀째인 12일에는 12개 전문분야 논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끈 분야는 생물정보학, 정보검색과 검색, 의료 시스템의 컴퓨터 응용, 멀티미디어 시각화 등이었다.

생물정보학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한 매튜 파스칼 인디애나 대학교 교수는 "생물학 분야의 방대한 연구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 온디플라이(동시적 정보검색) 방식으로 분석한다"며 "10년 안에 유전자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암, 당뇨 등 질병을 정확히 예측하고 미리 치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세션 중에는 '의미를 파악하는 웹 검색'이란 주제와 나와 관심을 끌었다. 파일 '사과'를 검색하면 '미안하다'는 의미의 '사과' 등을 뺀 문서나 콘텐츠만 검색하는 기능이다. 무청에 오스트리아 린츠대학교 공대 연구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회계부정 스캔들인 엔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도 의미화한 검색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비리를 밝혀내는 데 필요한 몇 개의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엔론 내외부로 오고간 이메일을 모두 체크해 본 결과 비리가 포착된 이메일을 발견했다는 것.

다니엘 로버트 브라질 상파울루대 교수는 '멀티미디어 시각화' 세션에서 방화벽이 존재하는 컴퓨터 간 네트워크 연결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 'MOJOHN (Modular, Java-Oriented and Hostile Nat-Proof)'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신규사업 성공의 비밀 CEO의 필독서

성장을 위하여 도박을 하지 마라!

신규사업의 90%는 실패로 끝난다. 성장에 대한 압력, 낙관론, 벤처캐피털 사재의 지나친 신뢰는 신규사업 진출시 신중함과 엄격함을 잃게 한다. '교통 신호등' 심사도구로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 하고 성공의 6원칙을 따르라.

신규사업 성공 6원칙

1. 핵심사업에 투자하라
2. 매력적인 시장에 현혹되지 말고 회귀계임을 놓치지 마라
3. 우위성을 찾고 숫자게임에 치우치지 마라
4. 자사의 역량에 겸허하라
5. 인재발굴에 역량을 쏟아라
6. 현실적인 야망을 가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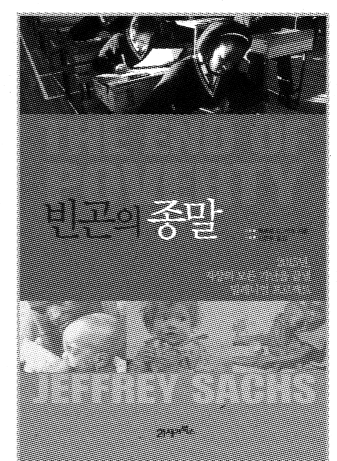
- '한판 승부'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경영자나 사업 심사 도구를 이해하려는 컨설턴트, 대학생들에게 지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이다. **한국경제**
-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 **매일경제**
- '모나, 모나'가 아니라 확실한 성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성장하고 도박

앤드류 캠벨 · 로버트 마크 지움 | 이상욱 옮김 | 값 23,000원

가난 없는 세계 그 해답을 찾은 희망의 경제학



(TV 책을 말한다) 선정 '올해의 책'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스 지음 | 김현구 옮김 | 값 28,000원

다산칼럼

鄭奎載

논설위원 경제교육연구소장



맞다! 약력 고리대만큼이나 경제 정의에 반하는 장사도 없다. 공지에 틀린 서민들에게 무려 연 3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고 장기를 뽑아 팔거나 인신매매 조간까지 벌인다니 천하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생명 없는 돈이 지식(이자)을 일태하는 이 더러운 직업을 규탄하는 다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고리대금업자는 악에 깊이 몰든 도둑들이다. 타인의 자양분을 먹어치우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삼인자와 다르지 않다. 마땅히 다리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梟刑)에 처해야 한다.” 이 거친 목소리의 주인공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다. 그는 거열형에 처해야 할 집단으로 유대인을 지목했다. “그들의 본거지를 박살내고 집시처럼 떠돌게 해야 한다. 이 유해한 독기를 지닌 벌레들을 강제노동에 몰아넣어 박멸해야 한다.”

역사의 장면 어디에선가 익히 들어보았던 격렬한 구호다. 중세 프랑스의 한 초서에 의하면 시골사람의 43%, 도시사람의 65%가 유대인 고리대금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셰익스피어조차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사말록을 그토록 비난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살인이 1과돈을 떼어내며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는 관례에 박수

를 쳤던 대중정서가 모여 소위 ‘역사적 정의’로 넘쳐났고, 그것의 종착역인 나치즘은 결국 인류사의 가장 큰 죄악인 유대인 대학살로 치달았던 거다. 위선적 정의는 처음부터 회생양이 필요하다. 어쨌든 중세 기독교는 이자를 금지했고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금지된 사업밖에 없었다. 출애굽기는 “너희가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빌 갚기를 재촉해서도 안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다른 장면(신명기)은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고 했으니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생업을 영위했다. 이슬람은 지금까지도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선은 위선일 뿐이다. 이자 대신 배당금을 받거나 이방인을 중간에 세워 돈을 빌려주면서 실질 이자는 더욱 높아지는 역설들이 ‘어디서나’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곤 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래 없는 8·3조치를 발동하면서까지 사재를 막았지만 고리대는 지금껏 사라져 본 적이 없다. 시대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자를 또한 언제나 채무자의 숨이 턱에 닿는 바로 그 선이었다. 그것은 철저히 ‘공백한 처지의 억눌름’이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수확경사론’ 다시 본 조순 후기는 경제가 파헤쳐지면서 당시 이자수준이 연 50%를 웃돌았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개항기에 들른 월 10%로 또 두 배나 뛰어올랐다. 경제가 파탄날 때 고리대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일종의 자연법칙이다.

지금만 국회는 이자를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서민 구제라는 아름다운 명분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불가피한 개입”이라고 둘러댔고... 그러나 이자제한법을 과연 정의롭다고 해야 할 것인가. 일자리 아닌 실업자가 늘려나고 600만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부도직전의 절벽 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급전을 빌릴 수 없게 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사채업이다. 이제 와서 고리대를 금지한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이 정부는 뇌가 있는 것인가. 서민들은 급전을 빌려 그나마의 버티기를 시도했던 한두 달의 여유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反)자동법률 운운할 가치조차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가 나빠지는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난다”고 말했지만 경제가 파탄났기에 300% 고리체가 실행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짜증을 낼 것인가. 이자제한법은 한중의 약력업자들에게 사민경제와 타인의 책임을 돌리는 꼴이다. 온 국민을 상대로 다락같은 수수료료를 물리고 사실상의 금리 답답을 통해 수조원씩의 이익을 썩내는 은행에 대해서는 오블란인(吾不關焉)인 이 나라 정부다. 더구나 은행업은 정부가 면허장을 주는 특권 사업이다. 장사가 될 만하니 온 나라 은행장은 퇴직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다. 금융업 전부를 착취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고리대금에 책임을 뭉텅했다는 것인가. jki@hankyung.com

천자칼럼

‘손자가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 돈이 없는 친할머니는 어디선가 받은 옥막대기를 주는데 여유있는 외할머니는 영상 휴대폰을 선물한다. 친할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걸 본 손자는 휴대폰에 옥막대기를 매달고 자랑한다. 친할머니는 늦었다며 뛰어나가는 손자에게 “한 손가락이라도”라며 국밥을 떠먹인다.’

TV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한 장면이다. 답답한 세상 탓인가. ‘거침없이 하이킥’이란 말이 대우명이다. MBC가 9시 뉴스와 함께 부동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저녁 일일연속극 시간을 7시대로 앞당기고 과감하게 8시대에 배치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야말로 사방팔방에서 쓰인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히트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 시작됐을 때만 해도 과연 관중을 끌 것인가 걱정스러웠다. 시트콤(situation comedy)의 속성상 부담스럽고 재미있었지만 새롭고 흥미로운 소재를 계속 찾아낼 수 있겠지. 행여 억지웃음을 강요하진 않을까 걱정되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온가족을 화면 앞으로 끌어당겼다.



거침없이 하이킥

그러면서 2007년 최고의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륜도 출생의 비밀도 재벌 2세도 없는 이 시트콤엔 이땅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짜 모습 이 들어 있다. 능력있는 며느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안타까움이 있고 실수로 회사에서 해고된 백수(문이)의 답답함이 있다.

공부 잘하는 형과 그렇지 못한 동생의 갈등이 있고, 결혼이 꿈에 있어왔다는 생각에 이혼하고 홀로 서보려 하던 만만치 않은 세상에 눈물짓는 여성(둘째 며느리)의 고통이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는 남편의 고지식함, 동사끼리의 자존심 싸움, 젊은 싱글대디의 고통도 드러난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야 작은 배려에 감동하는 가족 간 사랑이 가슴을 저미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긴장을 위해 온 근한 추리극 요소도 삽입된다. 어느 분야에서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버리면 관중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실에 충실하고, 인간의 약점조차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한경 카툰

지겨운 힘겨루기... 허나라, 단속... 이만... 3월 13일...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블록렌즈

“기업 공장살인 민원을 바로 뛰며 윈스를 해결.” 경남 합안군정 성공사례에 각급 지자체 벤처마킹 러시. 진정한 ‘공복(公僕)’ 이름값 계기 되도록.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법인 대표직.

해당 기업서 영전 코스로 급부상. ‘외국계’ 면 캄백 죽는 공무원·투자자들의 든든한 뒷받침도 한몫? ...서방 메이저들이 장악하는 석유시장. 사우디·러시아·이란 등 신흥시장 국가 국영업체들로 권력 이동중. 디샹 재주만 넘는 꿈은 아니라 배기.

제13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for assets and liabilities, and sub-sections for 13th and 14th periods.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Includes details about the meeting, agenda items like financial statements, and shareholder information.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Includes meeting details, agenda items, and a table of candidates for the 9th general meeting.

DDoS 공격 개인이 막기엔 한계 정부 나서야

〈서버 무차별마비〉

몇 년 전만 해도 해킹은 컴퓨터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을 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 해킹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해킹은 이제 남의 개인정보와 돈을 빼내기 위한 도구가 됐다. 국내에서도 은행 사이트를 가동하거나 신용카드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해킹으로 알아내 남의 돈을 탈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일반인 2500여명과 220여개 기업 전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에 참가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13일 행사장인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정보보안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참석자

마커스 로저스 교수(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컴퓨터학과)
브라젠드라 판다 교수(미국 아칸소주립대 컴퓨터학과)
홍지만 교수(숭실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학부)
사회: 신승윤 교수(미국 사우스코로라도주립대 컴퓨터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초빙교수)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 서울패인 13일 행사 참석자들이 쉬는 시간에 한국 경제신문에 실린 행사 기사를 보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미국컴퓨터학회(ACM) 정식 논문으로 채택되지 못한 논문을 발표하는 '포스터 세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사회=컴퓨터 범죄로 인해 정보보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로저스 교수=피싱, 파밍, 이메일 가로채기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해커가 수백만, 수 천만달러를 쉽게 훔쳐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피싱과 파밍 공격이 미국 못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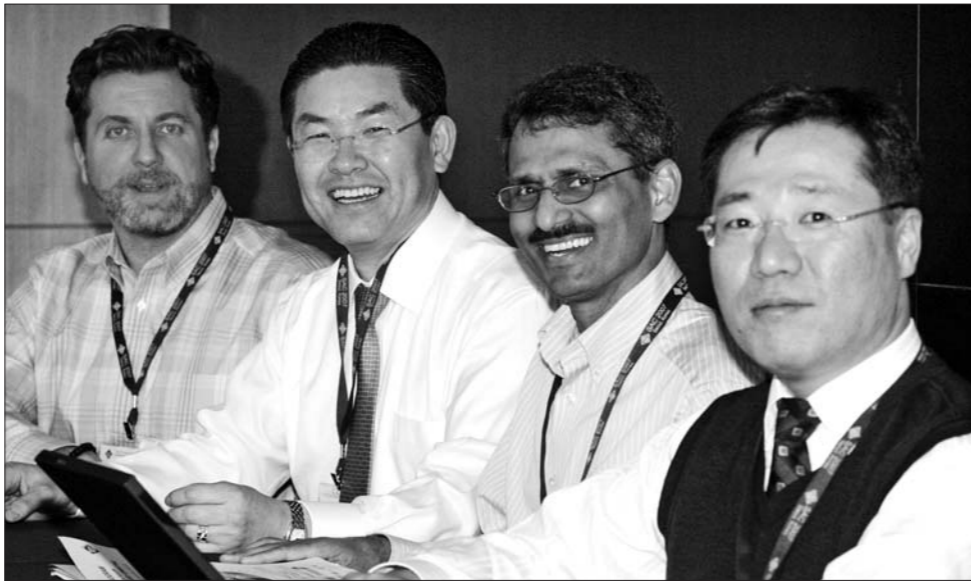
홍지만 교수=최근 국민은행 사이트를 가장한 파밍 공격으로 5000개가 넘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지요.

사회=문제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조치를 마련해도 그럴 뚫는 방법이 쏟아져 나오니... 해킹과 보안은 쫓고 쫓기는 체이스 게임 같군요.

판다 교수=미국에서는 피싱 사이트가 일반인이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로 유사합니다. 피싱 같은 볼륨적 다수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특정 사이트를 겨냥한 DDoS 공격(본산 서비스 거부 공격: 서버에 데이터를 폭주하게 해서 시스템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도 있고요. 이것은 2000년 2월 이후, 이베이, 아마존, CNN 등 미국 주요 사이트를 공격하면서 알려졌죠. 이 공격은 지금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회=미국에서는 노인 개인정보 도용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로저스 교수=요즘 웬이나 바이러스는 대개 정교한 DDoS 공격을 동반합니다. 시스템을 무력화한 다음 정보를 빼내는 거죠. 이렇게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좌담회 참석 교수들은 전세계가 컴퓨터 보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로저스 교수, 신승윤 교수, 판다 교수, 홍지만 교수.

다. 병원, 정부, 기업 등에 저장돼 있는 모든 개인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 교수=인터넷 사용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용정보 취급기관 공조강화 필요

판다 교수=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또 글로벌 시대라서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의 개인정보도 미국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개인정보는 '관할(jurisdiction)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모든 기업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로저스 교수=맞습니다. 정보보안은 전적으로 관할의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의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했지요. 사고 발생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요. 개인이 자기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정보 유출 경위를 추적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

니 모든 기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로저스 교수=저는 경찰에서 범죄과학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공격에 노출됐던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취약점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공격을 당하더군요.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 전표를 분쇄기에 넣고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회=자물쇠를 채우고 또 채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로저스 교수=무조건 20자리 비밀번호를 쓰게 하고 매일 바꾸게 하면 어떨까요. 완벽한 보안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개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결국 맡겨진 개인정보를 보물단지처럼 다루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홍 교수=앞으로 10년 동안 보안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최근 정보기술(IT) 산업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IT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보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시맨틱웹(지능형 검색) 등 성장력이 무한한 IT 분야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요. 휴대폰 반도체 등 하드웨어는 IT 산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판다 교수=미국의 경우 보안 인력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면 의미가 없지요.

한국 보안기업 특화분야 찾아야

사회=한국 보안기업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로저스 교수=미국 보안기업들은 대개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합니다. 보안 공격은 항상 글로벌하게 이뤄지기 때문이지요. 보안만큼 선점 효과가 큰 분야도 없어요. 시맨틱, 맥아피 등 전 세계 1, 2위를 달리는 보안기업은 모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등 개별 분야를 완전히 선점한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거죠. 통합 보안을 제공한다면 투자 대비 효과가 커집니다. 보안은 모든 게 연결돼 있는 전체적인 개념 아니까요.

홍 교수=그럼 한국 보안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저스 교수=시장을 철저히 조사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안티바이러스에서 시맨틱을 이기기란 쉽지 않죠. 특화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취재팀=고기완 차장(팀장)/이희성/김보라/안상미/이미아/정호진/성선화/박민재/홍경남 기자 dadad@hankyung.com

용어용어

피싱: 은행 카드사 등으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가로채 자금을 빼가는 공격 기법.

파밍: 피싱에서 진화한 수법.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자체를 변경해 'www'로 시작하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가 뜨게 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14일 프로그램

회의실	9:00 10:00	10:30 12:00	13:30 15:00	15:00 17:00
Room1	응용체계 에플리케이션1	응용체계 에플리케이션2	응용체계 에플리케이션3	
Room2 (기조연설)	시맨틱웹과 에플리케이션1	시맨틱웹과 에플리케이션2	컴퓨터보안	
Room3	수사의 진화	계산논리학과 신뢰	신뢰 분산시스템1	신뢰 분산시스템2
Room4	소프트웨어 공학1	소프트웨어 공학2	모바일보안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자 일본연수' 및 '일본전문가 초청 기술지도' 사업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인재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기술인력 일본파견 및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술자 일본연수 (사업명: 지식산업기술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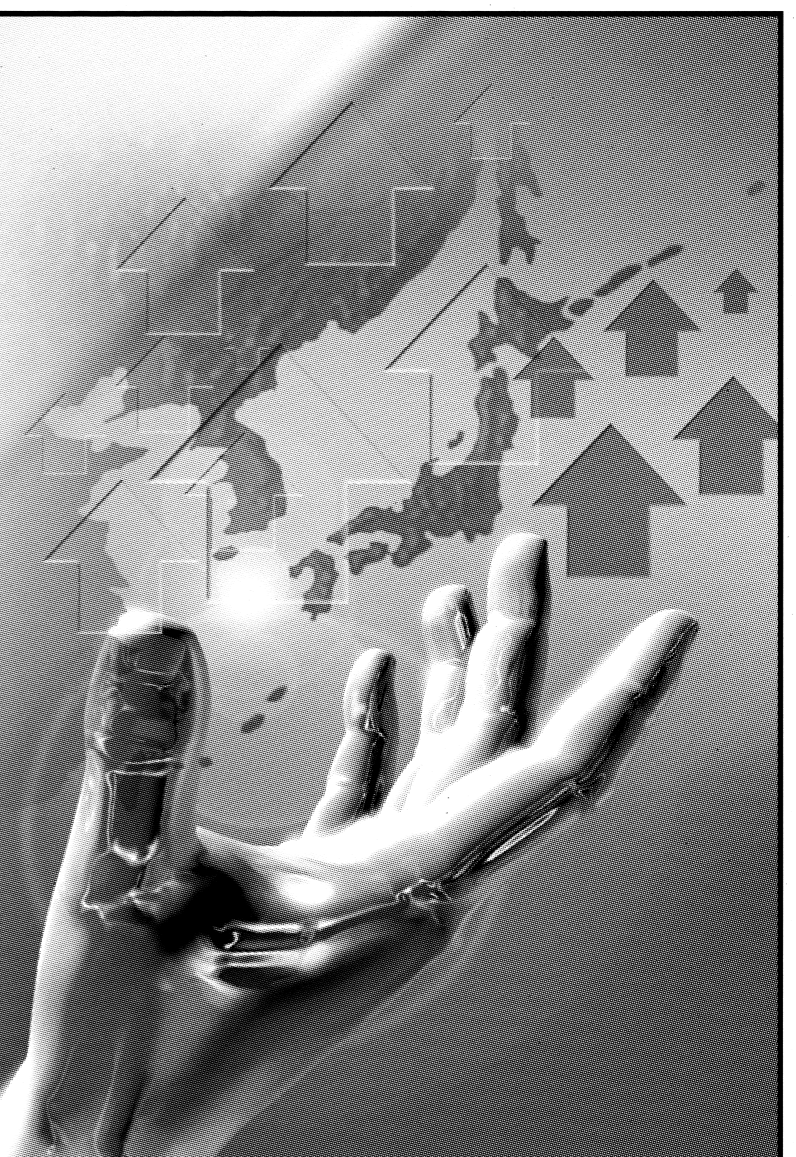
- 연수분야: 제조업 및 서비스업
- 파견규모: 20명
- 신청자격: 국내 중견·중소기업 근무 기술자
- 연수기간: 2007. 7. 23 ~ 11. 10

기간	내용	비고
7. 23 ~ 8. 22	출국 / 일본어 연수	동경
8. 27 ~ 9. 21	기업 현장 연수(1차)	해당 기업체
9. 22 ~ 9. 27	일시 귀국(추석)	
9. 28 ~ 11. 10	기업 현장 연수(2차) / 귀국	해당 기업체 / 동경

- 연수경비: 400만원(한국측 연수경비의 20%)
- 모집마감: 3월 3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및 문의: 산업기술팀 이광재 차장
- TEL: 02-3014-9813 / FAX: 02-3014-9800
- E-Mail: kjlee@kjc.or.kr

일본 전문가 초청 기술지도 (사업명: 생산성향상기술컨설팅)

- 지도기간: 2007년 5월 중순 ~ 8월 하순 (실지도일수 1사당 4일)
- 지도규모: 7개사
- 신청자격: 하기 지도분야 해당 중소기업으로 상주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
- 지도분야
 - ① 기계조립·자동화
 - ② 프레스·금형기술
 - ③ 기계·금속가공
 - ④ 용접·열처리
 - ⑤ 전기·전자기술
 - ⑥ 사출·성형기술
 - ⑦ 기타 (센서·진동소음·분체기술·기계/설비/차구설계 등)
- 전문가 그룹: 전문가 1인, 통역 1인, 사무국 1인 등
- 기업부담금: 없음 (전문가 초청비 및 통역지원비 등 전액 주최 기관 부담)
 - *단,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도에 따른 교통편(호텔~회사) 및 중식은 기업에서 제공
- 지도기업선발: 서류심사 및 양국재단 관계자의 후보기업 사전방문을 거쳐 최종 선발
- 모집마감: 3월 21일(수)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및 문의: 산업기술팀 이병국 과장
- TEL: 02-3014-9814 / FAX: 02-3014-9800
- E-Mail: bklee@kjc.or.kr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jc.or.kr-모집안내)의 해당사업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 [접수처: (우135-821)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 한일재단빌딩 3F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산업기술팀]

주최: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후원: 산업자원부 / 일본경제산업성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미국컴퓨터학회 서울대 공동주최

넷째날 / 응용 소프트웨어 자유토론



과학자들이 포스터 세션에서 논문을 둘러보거나 저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개미 최단거리 이동 원리, DB에 적용한다면

곰팡이 번식 원리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먹이를 찾기 위해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개미와 벌의 특성을 컴퓨터 네트워크에 응용할 수 없을까. 이런 재미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이 14일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에서 발표돼 화제가 됐다.

참석자

- 로널드 드 메네즈 교수(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
안젤로 브레이너 교수(브라질 포르탈레자 컴퓨터공학부)
로사나 안드레아 교수(브라질 세아라 대학 컴퓨터공학부)
히삼 하디드 교수(미국 케네소 주립대학 컴퓨터공학부)
리처드 슈베흐 교수(프랑스 부르고뉴 대학 컴퓨터공학부)

2위권 논문 발표장 포스터 세션
논문 저자와 일대일 심층토론
국적 나이초월 만남의 장 역할

이번 대회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포스터 세션(Poster Session)'이다. 이 세션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컴퓨터학회(ACM)에 논문을 보냈으나 정식논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한 2위권 논문을 공개하는 자리다.

포스터 세션의 논문 저자는 대부분 대학원생이나 젊은 교수다. 아직 학문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연령대의 미래 두뇌들이다.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노련한 교수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행운도 누린다.

포스터 세션의 논문 저자는 대부분 대학원생이나 젊은 교수다. 아직 학문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연령대의 미래 두뇌들이다.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노련한 교수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행운도 누린다.

노키아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중국인 양아오진씨(32)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더욱 복잡해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논문을 설명했다.

그는 "노키아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에게 1년 단위로 시간을 주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라면 무엇이든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한다"며 "중국에 비해 연구 환경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들려줬다.

캐서린 프랜시스 호주 멜버른대 학생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약간 부담가는 논문"이라며 "내 논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메네즈=개인적으로 곤충과 컴퓨터를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복잡한 문제를 생물학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식이죠. 곤충이나 박테리아 등이 온도를 인식하는 방법이나 행동, 습관을 분석하고 이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해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디드=그거 재미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메네즈=예를 들어 곰팡이는 한 지점에서 생겨나 특정 경로로 증식합니다. 곰팡이는 특정 경로가 포화된 것 같으면 다른 경로로 방향을 수정하죠. 물론 최단경로로 수정합니다. 네트워크의 한 부분인 라우터(랜을 연결해 정보를 전송할 때 송신정보에 담긴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경로로 정보이동을 안내하는 장비)의 기능이 이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기기와 무선네트워크 융합

브레이너=저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와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모바일 기기가 데이터베이스 기능의 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또 무선 네트워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 중입니다.

안드레아=저는 모바일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보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드 메네즈 교수



안젤로 브레이너 교수



로사나 안드레아 교수



히삼 하디드 교수



리처드 슈베흐 교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서 원활히 돌아가게 떠받치는 받침대)나 모바일 미들웨어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요. 또 한국의 IT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디드=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가 이 대회의 이슈입니다. 저는 이 대회의 운영비 등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런 종류의 대회 스태프를 계속 맡아왔죠.

슈베흐=저는 멀티미디어 구현에 필요한 미들웨어를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과 멀티미디어 구현 기술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지요.

메네즈=모바일 컴퓨팅은 매우 복잡한 분야라 매우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시간절약 SW가 기업생산성 높여

하디드=저도 여러가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대단히 올라갑니다.

안드레아=IT 산업의 패러다임은 고도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T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또 IT 기기에 대한 의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점이 있는 하드웨어 시장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특별취재팀=고기원 차장(왼쪽) 이해성/김보라/안상미/이미아/정호진/성선화/박민재/황경남 기자 dadad@hankyung.com

용어풀이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Rich Internet Application):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웹의 장점을 혼합한 소프트웨어로 사용자환경(UI)과 운영자환경(OI)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부동산개발 전문가과정

[부동산디벨로퍼 양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실무추진 능력과 사업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실무에서부터 토지매입, 토지분석, 상품개발기획, 사업타당성 분석, 설계, 인허가, 파이낸싱, 분양, 시공관리, 정산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단기간에 습득토록하여 현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실무사제 중심의 부동산디벨로퍼 등록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기간

- ◆ 66기(0426반) : 2007년 4월 2일(월) ~ 4월 25일(수)
◆ 67기(토요반) : 2007년 4월 14일(토) ~ 5월 12일(토)

모집대상

- ◆ 건설사, 금융, 일반기업체의 부동산관련 담당 임직원 및 부동산업 종사자
◆ 변호사, 법무사, 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 부동산 채테크, 부동산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부동산관련 업무에 처음 입문하는 분으로서 단기간에 이론적, 실무적 이해력이 필요하신 분

교육내용

- 부동산개발사업 개념의 이해
■ 개발사업, 유형, 방법, 절차
■ 부동산개발사업 타당성검토
■ 자금조달 실무
■ 프로젝트파이낸싱, ABS 등
■ 시설부동산개발사례
■ 건축인허가 유형 및 절차
■ 토지개발의 유형 및 절차
■ 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등
■ 토지분석 실무
■ 정·보·접수, 환경·법률분석, 인허가
■ 상업시설 개발방법과 사례
■ 상권 및 입지분석
■ 도시정비사업 추진실무 및 사례
■ 뉴타운개발 및 도심재개발실무
■ 부동산이탈권 및 분양실무
■ 시정조사기법, 분양시스템, 광고 등

모집요강

- ◆ 모집인원 : 선착순 34명 ◆ 수강료 : 88만원(교재비포함)
◆ 고용보험환급을 받고자하는 대상사업장은 개강일전까지 훈련위탁계약서 제출 바람
◆ 교육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3층(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 입학금/교과 : 우리은행485-007518-13-021 예금주: (주)한국경제신문
◆ 개강일 사전1배 제출(인증서제작용)

교육특전

- ◆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명의의 수료증 및 디벨로퍼(인간자격) 인증서 교부
◆ 식사제공 및 무료주차 / 야간반, 토요일 상해보상 가능
◆ 환경아카데미교육기수료자 및 기업체 3인 이상 단체수강시 교육비 10%할인

교육문의 및 접수처

한국경제신문사 환경아카데미
(Tel : 02-360-4881~6/ Fax : 02-360-4899)

한국경제신문사 환경아카데미
http://ac.hankyung.com

부동산 자금조달 실무과정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문가양성]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기법의 하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실무를 터득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 분석,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기간

- ◆ 22기(토요일) : 2007년 4월 7일(토) ~ 4월 28일(토)
◆ 23기(야간반) : 2007년 5월 7일(월) ~ 5월 23일(수)

모집대상

- ◆ 디벨로퍼, 시행사, 건설사, 부동산건설팀 분야 담당 임직원
◆ PF의 리스크를 관리, 분석, 통제 하고자 하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연기금단체등의 담당 임직원
◆ 사업 및 업무 목적으로 리스크없이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 개인, 단체
◆ 인적네트웍을 구성하여 업무 및 사업의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

교육내용

- 부동산개발사업과 펀드매니저(PF)의 역할
■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형과 특징
■ 부동산개발금융(PF) 업무절차
■ ABS, MBS의 구조와 개념/사례
■ 부동산신탁의 이해 및 적용
■ 금융기관별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례
■ 부동산펀드의 이해 및 적용
■ 금융기관별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분석기법 및 관리 전략
■ 부동산개발PF 사업성평가와 위험분석
■ 사업타당성 검토방법 및 실무
■ 건설사 자금조달사례
■ 프로젝트파이낸싱 실사례연구 및 실습(보고서작성,리스크분석,검토의견서 등)

모집요강

- ◆ 모집인원 : 선착순 34명 ◆ 수강료 : 66만원(교재비포함)
◆ 고용보험환급을 받고자하는 대상사업장은 개강일전까지 훈련위탁계약서 제출 바람
◆ 교육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3층(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 입학금/교과 : 우리은행 485-007518-13-021 예금주: (주)한국경제신문

교육특전

- ◆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명의의 수료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인증서 교부
◆ 식사제공 및 무료주차 / 야간반, 토요일 상해보상 가능
◆ 환경아카데미교육기수료자 및 기업체 3인 이상 단체수강시 교육비 10%할인

교육문의 및 접수처

한국경제신문사 환경아카데미
(Tel : 02-360-4881~6/ Fax : 02-360-4899)

한국경제신문사 환경아카데미
http://ac.hankyung.com

기조연설 / 마커스 로저스 美 인디애나 퍼듀大 컴퓨터학과 교수

acm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해킹등 각종 컴퓨터 범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잡는다

< 컴퓨터 범죄 법의학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나흘째 열린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에서 일반인에게 생소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 소개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범죄 법의학을 말한다.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와 사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 등을 파헤치는 법의학이 사용된다. 컴퓨터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해킹, 온라인 금융사기 등에 사용된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재집해 범인을 밝히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다. 범인이 망가뜨린 하드웨어를 복구하는 것도 디지털 포렌식이다.



마커스 로저스 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컴퓨터학과 교수(사진)는 '범죄과학 추사의 진화'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형사 검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아직도 화재보험에는 기계이 돈을 쓰지만 디지털 범죄 예방에는 돈을 쓰길 꺼린다"며 "포렌식 분야 투자는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수가 되기 전에 13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독특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다. 그의 기조연설을 요약한다.

증거수집 → 보존 → 분석 → 결정

포렌식은 해커나 산업스파이 혹은 조직원에 의한 기밀 유출 등 컴퓨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검사해 범인을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포렌식의 첫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각광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과학사그룹(SWGDE: Scientific Working Group Digital Evidence)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포렌식의 출발점은 증거가 범죄에 관련이 있는지 식별(identification)하는 것이다. 식별된 디지털 증거는 수집, 보존 과정을 거친다. 디지털 증거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정보, 하드나 메모리 등에 저장된 내용, 네트워크 로그인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포렌식은 주로 군대의 정보수집이나 경찰의 범인검거 활동에 사용된다.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면서 연구센터로 이동해야 한다. 무결성이란 증거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들이 현장에 발자국을 남기거나 지문을 뒀을

때 발자국 모양이나 지문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결성을 유지한 증거는 분석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보고된다.

무결성은 해시합수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처음에 증거를 포착했을 때 해시합수를 설정해 놓으면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누가 손을 대는 순간 해시합수 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작을 했다는 것이 금방 들쭉날쭉하다.

디지털 증거는 랩 등에 저장돼 있는 휘발성 증거와 하드, 스토리지 등에 저장돼 있는 비휘발성 증거로 나뉜다. 이 증거들을 확보하면 범죄자가 어떤 경로로 접근, 어느 부분을 훔고 들어와 어떤 공격을 가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비휘발성 증거는 하드나 스토리지 사본을 뜨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휘발성 증거는 요즘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요즘 디지털 증거 수집의 가장 큰 과제는 휘발성 증거를 적절히 포착하는 것이다.

증거수집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가 왜 의미가 있는지 검사와 판사에 납득시켜야 한다. 포렌식의 마지막은 '결정(decision)' 단계다. 판검사들은 대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 강의를 나가면서 포렌식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거수집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가 왜 의미가 있는지 검사와 판사에 납득시켜야 한다. 포렌식의 마지막은 '결정(decision)' 단계다. 판검사들은 대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 강의를 나가면서 포렌식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을 할 때 매우 유용해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때가 많다.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은 첨단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하는 고급 인력이다. 나는 20명 정도의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모두 취직이 보장돼 있다. 대개 연봉 7만달러를 받는다.

포렌식 국제표준 만들어야

디지털 정보가 작년에만 161억사(10의 15제곱) 바이트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컴퓨팅 모델이 절실하다. 암호화 기법, 스테가노그래피 등 디지털 정보를 숨기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포렌식과 관련된 컴퓨팅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이번 대회에서 소개된 응용 컴퓨팅 기술들이 매우 유용했다. 데이터마이닝, 비주얼 기법, P2P 네트워크에 관련된 논문들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과 정교함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일 좋은 상황은 나 같은 컴퓨터 범죄 수사 인력이 활동할 일이 없을 정도로 미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논

에 금방 보이지 않는다고 보안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면 비용은 몇 천 배를 더 지불하게 된다. 기업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범죄가 한번 일어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안을 잘 챙기면서 보안 조치가 소홀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보안을 든다는 생각으로 안티바이러스, 방화벽뿐 아니라 각자 사업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범죄과학수사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하루빨리 확산돼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증거 수집에 대한 법이나 증거 인정능력, 증거의 규격 등의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제 표준을 통합하기 위해 관련 연구소와 저널이 활성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최근 사이버 범죄 협정(cyber crime treaty)을 맺고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 기업과 사법기관들도 포렌식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디지털 범죄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

회의실	8:30-10:00	10:30-12:00	13:30-15:00	15:30-17:00
Room 1	원기기술	원기기술	전자거래 기술	소프트웨어 검증
Room 2	인터넷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술	인터넷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기술	컴퓨터 언어 및 구조	시맨틱 기반 지능형 검색/검색/작성
Room 3	유니버시티 컴퓨팅	컴퓨터 시스템 구성공학	컴퓨터 시스템 구성공학	핸드오프 컴퓨팅
Room 4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이벤트-생성, 자원, 이동성, 시스템	범죄과학 수사

용어풀이

◆ 스테가노그래피: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서 숨기는 심층 암호화 기법.

◆ 스냅샷 시스템 메모리 상의 여러 프로세스와 모듈에 대한 읽기 전용 복사본. 휘발성 증거를 포착할 때 사용된다.

여성 과학자 2인 인터뷰

컴퓨터 이미지 검색시대 열고파

佛 낸시대 박사과정 세빈 바라씨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키워드 대신 이미지를 입력해 검색하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지 검색 시대를 여는 게 제 꿈이죠."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프랑스 여성 컴퓨터 과학도 세빈 바라씨(26 사진)는 "이미지 검색은 컴퓨터 과학자 사이에서도 생소한 분야"라며 "젊은 과학도라면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색이 무엇인냐"고 묻자 이렇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펜이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검색하려고 합니다. A는 '동글고 검정색'이라고 검색하고, B는 '앞쪽에 뾰족한 점이 있다'는 키워드를 넣죠. 그럼 검색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미지 검색은 키워드 검색의 이런 오류를 줄이는 게 목표죠. 불펜을 검색하고 싶다면 그냥 불펜 이미지를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발표를 지켜본 웹 기술 전문가들은 바라씨의 논문대로 이미지 검색이 실현되면 쓸모없는 검색 정보를 훨씬 수월하게 숙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라씨는 낸시대학에 입학한 18세 때 응용 컴퓨터 학문을 처음 접했다고 했다. 그는 "논문이 콘퍼런스 발표용으로 채택됐을 때 매우 기뻐했다"며 "과학자가 되니까 한국에도 오고 좋지 않냐"며 웃었다. 대학원 졸업 후엔 무엇을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교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글 같은 데서 일하면 된다"고 답했다.

고국 시리아에 인공지능기술 전파

佛 로리아 인리아 로레인 연구원 카사르씨

"고국 시리아로 돌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파할 거예요." 프랑스 로리아-인리아 로레인 연구소(프랑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유학 중인 시리아 학생 로리아 카사르씨(29·사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으로 공부하고 있는 만큼 고국으로 돌아가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카사르씨는 시리아 다마스쿠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부터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얀 히잡을 두른 카사르씨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리아 정부가 정보기술(IT)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당시 150명의 학생이 프랑스 독일 등 10여개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에서는 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이공계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소개했다.

카사르씨는 현재 소속돼 있는 코엑스팀 대표로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 IT산업은 프랑스에서도 유명하다"며 "이번이 첫 방문이라 그런지 새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흥분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AI는 이미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기술"이라며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마술과 같은 분야이고 젊은 학도들이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AI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 필터링'이다. 넘치는 정보를 사용자의 심리상태, 신체조건 등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채권회수관리(Ⅰ·Ⅱ·Ⅲ)
오시정(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신국판(고급양장) | 각권 값 36,000원

부실채권제로관리 프로젝트!

채권회수관리실무

채권관리실무자의 현장실무 지침서

“본서는 거래에서 실무자 또는 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채권의 발생시 부터 원인무효를 예방함으로써 부실채권의 사전방지 및 조기 회수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채권회수관리 (I)
채권회수 총론, 변제에 의한 채권회수,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 가압류에 의한 재산보전, 가처분에 의한 권리보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권리보전, 채권자채소권에 의한 권리보전, 소멸시효권리

▶ 채권회수관리 (II)
민사집행 총론, 강제집행의 요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에 대한 집행,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채권회수관리 (III)
부동산에 대한 집행, 유사 부동산에 대한 집행,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절차

관련신간도서
●채권계약관리 ●어음수표관리 ●부실채권관리
●담보취득관리(Ⅰ) ●담보취득관리(Ⅱ) - 각권 값 36,000원

신한엔비 출판영업부 (02)701-5161-2
전화로 신청하시고 구좌 (농협 1127-02-189115)로 송금하시면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회수기법 & 채권관리실무 특강

1건 해결 큰 소득, 확실한 회수기법 제시

강의 주요내용

사고·부실채권 긴급 회수기법

- 재산추적 및 가압류 조치
- 대물 변제 기법
- 제3채권 양도·양수
- 추심 및 전부명령 활용기법
- 민·형사상 접근 방법
- 채무명의 획득기법
- 변제공탁과 대응기법
- 채권자 대위권
-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 임의회수, 강제회수

어음수표 실무

- 어음·수표의 배서 문제
- 피사취부도 대처법
- 딱지어음, 동통어음 체크법
- 보증의 방식 & 효력
- 백지어음 활용법
- 어음·수표와 관련한 특수한 문제
- 어음공정 최대한 활용법

부실채권 예방전략 거래처관리방안

- 거래처 신용조사
- 부실징후 예견, 대응기법
- 계약체결 실무대책
- 여신한도 관리요령
- 담보취득 요령 / 양도담보
- 공금회령 사고 예방

채권 회수와 우선 변제권 관련형법·민법 해설

강의안내

- 교 재: 채권제로관리실무(Ⅰ·Ⅱ) 증정
- 기 타: 수료증 수여
- 문의 & 신청: 경영교육본부

Tel (02) 701-5161-2, Fax (02) 701-6160

일시 2007. 3. 21 (수) 13:30~17:3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서울

부안 경남지역

2007. 3. 26 (월) 14:00~18:00

부산상공회의소

신한M&B 부설 한국채권관리교육원

acm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미국컴퓨터학회 서울대 공동주최

마지막날 / 유비쿼터스 컴퓨팅 좌담회

자동차에 칩 운전패턴 분석해 보험료 차등화

유비쿼터스컴퓨팅 시대는 언제 올까,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해 업무를 보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1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폐막된 '세계 컴퓨터 과학자 서울대회'의 마지막 토론 주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생소하게 아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저절로 켜지는 전등, 히타나 스토브의 자동 온도조절기 등 센서가 들어가 있는 제품 등이 상용화된 것도 있다. 메신저와 휴대폰이 연동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 서비스도 한 종류다. 하지만 미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 장소, 시간, 단말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과 인간 생활 구석구석을 연결할 때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완성된다. 여기에는 모바일 컴퓨팅과 전자태그(RFID),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등이 완벽해야 한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

- 배럿 R. 브라이언트 교수(미국 앨라배마 버밍햄 대학)
- 릭 이크발 아하메드 교수(미국 위스콘신 마켓 대학)
- 일리아스 미켈라리아스 조교(독일 베를린 프리이 대학)
- 에릭 옴 교수(미국 앨라배마 텍사스 대학)
- 사회:신승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초빙교수



대회 마지막날인 15일 각국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좌담을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김병민 기자 misa@hankyung.com)

사회=요즘 모든 것에 유비쿼터스란 말이 붙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신승은 교수

아하메드=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적 개념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기기를 언제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산업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옴 교수, 아하메드 교수, 미켈라리아스 조교, 브라이언트 교수.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옴=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고정된 인프라를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특정 환경에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 돌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넬리 보규되러면 가격문제뿐 아니라 노트북 등 와이브로 단말기의 배터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트=저는 분산된 정보를 취합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이뤄져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봅니다.

아하메드=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합니다. 우선 어떤 정보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미켈라리아스=센서 기술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센서 기술을 통해 모바일 기기가 사회 모든 곳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U시티(유비쿼터스 시티)에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라 불리는 기술이 대표적이죠. 독일에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걸어가기만 하면 카드에서 돈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물건사고 나가면 카드 자동결제

사회=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옴=요즘은 메모리가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져 어떤 기기에든 탑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성능입니다. 배터리가 작아지면 수명이 길어지지 않으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회=U시티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돼 있습니까.

브라이언트=예를 들면 노키아에서는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업무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를 외부에서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대화나 중요한 이메일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에 들어올 때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바로 전송된다면 편리하겠죠. 이처럼 메신저와 이메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어)이 데스크톱 컴퓨터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입니다.

아하메드=아직은 물류, 공공 서비스, 의료 등 부문별로 기초적인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상용화를 준비 중인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RFID와 USN이 보다 정교하게 구축되고 PDA, 휴대폰 등과 연계한 기술이 활성화된다면 U시티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사회=한때 뉴저지주는 모든 렌터카에 센서를 붙이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79마일(시

속 약 126km) 이상으로 달리면 이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지 않았죠.

미켈라리아스=영국에서도 2,3년 전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패턴을 분석한 결과 운전 습관이 안 좋다면 보험료 산정에서 계약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 계약자는 6개월 동안 자동차에 집을 붙여 놓고 다녀야 하죠. 보험사는 이 패턴을 분석한 후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사회=유비쿼터스 기술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요.

옴=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보안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비쿼터스 환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센서 네트워크에서 보안 이슈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보안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진화할 겁니다.

배터리 센서 기술개발 시급

사회=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나 기술 동향은 어떤가요.

미켈라리아스=인텔, IBM, 모토로라 등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토로라와 인텔은 모든 기기를 집에서 조종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미국과 유럽은 정부 지원이 활발하진 않습니까.

미켈라리아스=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가과학재단)에서도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가과정

[부동산디벨로퍼 양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실무추진 능력과 사업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실무에서부터 토지매입, 토지분석, 상품개발기획, 사업타당성 분석, 설계, 인허가, 파이낸싱, 분양, 시공관리, 정산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 분야를 단기간에 습득토록하여 현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실무사례 중심으로 부동산디벨로퍼 등록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 66기(042반) : 2007년 4월 2일(월) ~ 4월 25일(수) ※매주 월,수 19:00-22:00
- ◆ 67기(토요반) : 2007년 4월 14일(토) ~ 5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09:00-18:00 (토요일 개강일은 19:00까지)

모집대상

- ◆ 건설사, 금융, 일반기업체의 부동산관련 담당 임직원 및 부동산업 종사자
- ◆ 변호사, 법무사, 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 ◆ 부동산 제테크, 부동산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 부동산관련 업무에 처음 입문하는 분으로서 단기간에 이론적, 실무적 이해력이 필요하신 분

교육내용

- 부동산개발사업 개념의 이해 - 개발사업 유형, 방법, 절차
- 부동산개발사업 타당성검토
- 자금조달 실무 - 프로젝트파이낸싱, ABS 등
- 시설물 부동산개발사례 - 주택, 오피스텔, 펜션, 리조트 등
- 건축인허가 유형 및 절차 - 건축심의,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 토지개발의 유형 및 절차
- 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등
- 토지분석 실무
- 정보검색, 환경·법률분석, 인허가
- 상업시설 개발방법과 사례 - 상권 및 입지분석
- 도시정비사업 추진실무 및 사례
- 뉴타운개발 및 도심재개발실무
- 부동산마케팅 및 분양실무 - 시공사별 마케팅, 분양시스템, 광고 등

모집요강

- ◆ 모집인원 : 선착순 34명 ◆ 수강료 : 88만원(교재비포함)
- ◆ 교육보험료를 받고자하는 대상사업장은 개강일전까지 훈련위탁계약서 제출 바람
- ◆ 교육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3층(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 ◆ 입금계좌 : 우り은행485-007518-13-021 예금주: (주)한국경제신문
- ◆ 개강일 사전1매 제출(인증서제출용)

교육특전

- ◆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명의 수료증 및 디벨로퍼(민간자격) 인증서 교부
- ◆ 식사제공 및 무료주차 / 야간반, 토요일 상호보장 가능
- ◆ 한경아카데미교육기수료자 및 기업체 30이상 단체수강시 교육비 10%할인

교육문의 및 접수처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
(Tel : 02-360-4881~6/ Fax : 02-360-4899)

부동산 자금조달 실무과정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문가양성]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기법의 하나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실무를 터득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 분석,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기간

- ◆ 22기(토요반) : 2007년 4월 7일(토) ~ 4월 28일(토) ※매주 토요일 09:30-16:30
- ◆ 23기(야간반) : 2007년 5월 7일(월) ~ 5월 23일(수) ※매주 월,수 19:00-22:00

모집대상

- ◆ 디벨로퍼, 시행사, 건설사, 부동산건설팀 분야 담당 임직원
- ◆ PF의 리스크를 관리, 분석, 통제 하고자 하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연기금단체등의 담당 임직원
- ◆ 사업 및 업무 목적으로 리스크없이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 개인, 단체
- ◆ 인터넷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업무 및 사업의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

교육내용

- 부동산개발사업과 펀드매니저(PF)의 역할
-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형과 특징
- 부동산개발금융(PF) 업무절차
- ABS, MBS의 구조와 개발/사례
- 부동산산업의 이해 및 적용
- 금융기관별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례
- 부동산펀드의 이해 및 적용
- 금융기관별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분석기법 및 관리 전략
- 부동산개발PF 사업성평가와 위험분석
- 사업타당성 검토방법 및 실무
- 건설사 자금조달사례
- 프로젝트파이낸싱 실무(모의작성, 리스크분석, 검토의견서 등)

모집요강

- ◆ 모집인원 : 선착순 34명 ◆ 수강료 : 66만원(교재비포함)
- ◆ 교육보험료를 받고자하는 대상사업장은 개강일전까지 훈련위탁계약서 제출 바람
- ◆ 교육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3층(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 ◆ 입금계좌 : 우り은행 485-007518-13-021 예금주: (주)한국경제신문

교육특전

- ◆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명의 수료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인증서 교부
- ◆ 식사제공 및 무료주차 / 야간반, 토요일 상호보장 가능
- ◆ 한경아카데미교육기수료자 및 기업체 30이상 단체수강시 교육비 10%할인

교육문의 및 접수처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
(Tel : 02-360-4881~6/ Fax : 02-360-4899)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
http://ac.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
http://ac.hankyung.com

한경 포럼

세계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불안하다. 차이나 쇼크가 얼마 전 시장을 강타하더니 이번엔 미국 모기지론업계의 부실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런 통화까지 변화는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 고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정상되고 있는 데서 비롯됐지만 긴 눈으로 본다면 어디까지나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단기적 요인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달러화 약세는 약세로 기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쌍둥이 적자라는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

적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도 낳고 있다. '금 본위' 화폐체도가 폐지된 이후 '미국 국제 본위' 제가 자리잡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이런 순환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로화가 등장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세력권을 넓혀가고 있고, 엔화의 영향력도 회복되는 추세다. 중국경제가 공황으로 성장하면서 위안화도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국경제를 지탱해온 순환 구조가 뒤틀린다면 미국은

이봉구
논설위원



달러화 위기인가

적 문제 탓이다.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는 실로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만 해도 8569억달러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의 6.5%에 이르렀고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상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선에 이르면 해당 통화는 절하압력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도 달러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데다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올린 나라들이 보유외환을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데 투입하고 있는 까닭이다.

쌍둥이 적자와 국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 이야기인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이나 쇼크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하는 것들이 예상외로 오래 끌고 가는 것은 통화까지 재편을 시사하는 전조 곡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bklee@hankyung.com

시론

安在旭
경희대 교수·경제학



작은 정부는 언제나 공염불

시장이 이러한 데도 정부 조치는 또 늘었다.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요청한 '국가채무관리법'과 '출자관리법' 등 2개법을 신설하고,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안(案)이 의결됐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팽창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커지면 정부가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는 첫째 자연히 정부의 시장 간섭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민간부분의 활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커지면 그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 세금을 올리고, 부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정과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시장과 비교해 오류(誤謬)를 시정하는 시간이 길고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 신기술에 대한 적응에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을 확대한 것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 국가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다.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효과가 없는 활동과 부서를 폐지하고, 특수이익집단을 보호하고 경제적 의미가 없는 부서들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적합한 활동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돼야 하는 활동들은 민영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세상 萬寫
그림이 말을 하네

세상에 볼거리가 많다. 그림 사진 만화 광고 영화 등 우리의 일상은 시각의 언어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한다.

그래서 피에트 몬드리안의 그림은 늘 신선한 즐거움을 준다. 그는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만을 이용했다. 직선, 3원색(노랑·빨강·파랑), 그리고 3가지 무채색(흰색·회색·검은색)만 사용한 그의 그림은 '영상의 공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써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비친다.

복잡한 계산을 쉬지 않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살 수 있다면 진정 행복하지 않을까.

취재여력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막된 '세계컴퓨터과학자대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됐다. 국적 나이 인종을 조율해 오로지 '컴퓨터과학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53개 국가에서 날아온 450여 명의 과학자들은 내년 3월 브라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세계컴퓨터과학자대회(ACM-SAC)는 자동차 전시회나 꽃 전시회처럼 일반인이 가족과 함께 와서 구경할 만한 쉬운 행사는 아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한 250여편 논문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했다.

미국컴퓨터학회, 서울대와 함께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신문사의 특별취재진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매 시간 작은 방에서 일제히 열리는 논문 발표 트랙에 들어갔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간에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복잡한 계산을 쉬지 않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살 수 있다면 진정 행복하지 않을까.

کم 과 사랑에 빠지다



한 것은 대화 이를 깨부터었다. 계기는 과학자들이 단견 격려의 말에서 비롯됐다. "일간신문이 ACM-SAC를 취재하느냐. 대단하다!"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과학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중국 일본 인도를 제치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안다."

행사 기간에 김동도 많이 받았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비즈니스 언어' (영어를 이렇게 불렀다)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논문은 어려웠지만 대화를 취재한 5일간의 행복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한사코 손사래를 쳤던 젊은 이집트 여성 과학자를 브라질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해본다.

고건원 IT부 기자 dadad@hankyung.com

Table with 2 columns: Department and Phone Number. Includes sections for '한국경제 민주시장경제의 창달' and '국독심청 배달안내'.

Large advertisement for '2007 ASTA JEJU International Destination Expo' with logos, dates, and venue information.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

미국컴퓨터학회 서울대 공동주최

결산 좌담회

검색자 마음 속까지 읽는 웹3.0 곧 온다

요즘 '웹3.0'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웹3.0 시대'가 온다'는 표현도 심심찮게 접한다. 웹3.0은 무엇인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 컴퓨터과학자 서울대회'의 마지막 화두는 웹3.0이었다. 웹3.0 시대를 조망하기 위해 공식 일정이 모든 끝난 16일 컴퓨터 과학자 4명이 따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웹3.0을 한마디로 '인간의 두뇌처럼 생각하는 똑똑한 웹'이라고 정의했다. 웹3.0을 먼저 구축한 기업이 구글을 무너뜨릴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참석자
◆아민 할레 연구원(아일랜드 골웨이 국립대 시맨틱 웹 박사과정)
◆양 아오진 연구원(노키아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
◆사회·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IT경영전략프로그램 주임교수

사회=웹3.0을 논하기 전에 웹2.0부터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레=웹2.0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지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웹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어)을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윈도라는 플랫폼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나 워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적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웹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창조하고 공유합니다. 블로그를 자신의 취향대로 만들거나 게시판에 댓글을 쓰고,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활동이 모두 웹 2.0의 특징입니다.
아오진=동의합니다. 웹1.0에서 웹2.0으로 넘어오는 데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힘이 컸죠. 부연하자면 웹1.0은 서버-클라이언트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상징합니다. 웹1.0 시대에서 정보 수용자는 전달자가 생산한 것을 받아만 봤죠. 웹2.0은 다양한 응용 컴퓨터 기술을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제작 동영상(UCC), 휴대전화, 프로슈머 등 근래에 회자되는 대부분의 트렌드가 이와 관련 있습니다.
사회=웹3.0은 무엇입니까.
할레=웹3.0은 웹2.0이 진화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머신 리더블(Machine readable)'입니다. 머신은 검색 엔진을 말하는 데 이것이 사용자 마음 속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이 바로 '시맨틱 웹(semantic web)'입니다.



연상능력까지 갖춰 사용자 검색의도 파악
웹3.0 선점하는 기업이 구글 꺾을 수 있을 것
한국에선 SW 중요성 인식 부족함게 문제

다. 시맨틱 웹이 적용된 검색 엔진이 바로 웹3.0입니다.
사회=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할레=시맨틱 웹은 검색어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사용자가 어느 플랫폼이 좋은지 더 나아가 '시맨틱 위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데이터베이스(DB)에 시맨틱 기술이 결합된다면 검색결과가 더 풍부하고 정교해질 겁니다.
아오진=노키아에서도 시맨틱 웹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키아는 모바일 기기로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에 시맨틱 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시맨틱 웹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기계(understood machine)란 말씀이군요.
아오진=그렇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이해하려면 검색엔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요. 인간의 인지기능과 동일한 검색엔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사뭇스스로 연결된 다양한 연상 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맨틱 위키는 검색어와 시맨틱 웹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정보의 구성이 인간의 인지기능과 동일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할레=그렇게 하려면 정보가 문장 형태로 저장돼야 합니다. '서울'이란 단어가 저장될 때 '서울은 아시아에 있다'라고 저장됩니다. 그외의 정보도 구조화된 질의어(SQL: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관련된 숨겨진 내용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회=(특별취재팀을 비롯한 정취자들에게)제가 설명하겠습디다. 이처럼 문장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면 '저 사람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울었다'라는 문장이 검색이 안되는 의미입니다. 문장을 잘 보면 서울(가증스러워 울을 처면 이런 문장을 검색되죠. 웹 3.0 시대엔 검색이 안 되죠. 그럼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할레=시맨틱 웹을 바탕으로 한 검색 엔진이 완성된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여

태로 저장돼야 합니다. '서울'이란 단어가 저장될 때 '서울은 아시아에 있다'라고 저장됩니다. 그외의 정보도 구조화된 질의어(SQL: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관련된 숨겨진 내용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회=(특별취재팀을 비롯한 정취자들에게)제가 설명하겠습디다. 이처럼 문장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면 '저 사람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울었다'라는 문장이 검색이 안되는 의미입니다. 문장을 잘 보면 서울(가증스러워 울을 처면 이런 문장을 검색되죠. 웹 3.0 시대엔 검색이 안 되죠. 그럼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할레=시맨틱 웹을 바탕으로 한 검색 엔진이 완성된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여

태로 저장돼야 합니다. '서울'이란 단어가 저장될 때 '서울은 아시아에 있다'라고 저장됩니다. 그외의 정보도 구조화된 질의어(SQL: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관련된 숨겨진 내용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회=(특별취재팀을 비롯한 정취자들에게)제가 설명하겠습디다. 이처럼 문장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면 '저 사람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울었다'라는 문장이 검색이 안되는 의미입니다. 문장을 잘 보면 서울(가증스러워 울을 처면 이런 문장을 검색되죠. 웹 3.0 시대엔 검색이 안 되죠. 그럼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할레=시맨틱 웹을 바탕으로 한 검색 엔진이 완성된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여

태로 저장돼야 합니다. '서울'이란 단어가 저장될 때 '서울은 아시아에 있다'라고 저장됩니다. 그외의 정보도 구조화된 질의어(SQL: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관련된 숨겨진 내용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회=(특별취재팀을 비롯한 정취자들에게)제가 설명하겠습디다. 이처럼 문장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면 '저 사람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울었다'라는 문장이 검색이 안되는 의미입니다. 문장을 잘 보면 서울(가증스러워 울을 처면 이런 문장을 검색되죠. 웹 3.0 시대엔 검색이 안 되죠. 그럼 현재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할레=시맨틱 웹을 바탕으로 한 검색 엔진이 완성된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여

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구글은 검색으로 세계를 석권한 기업인데 구글보다 좋은 검색 엔진이 나온다면 구글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구글이 웹3.0 검색엔진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오진=웹2.0 시대에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했던 웹3.0 시대에서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게 관건입니다. 웹2.0을 선점한 구글은 웹3.0에서도 세계를 주도하려 할 겁니다. 웹 3.0을 먼저 구축하는 기업이 구글을 꺾을 겁니다.
사회=구글 말고 웹3.0 시대의 리더로는 어떤 기업이 유력합니까.
할레=유럽은 리눅스 등 오픈 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입니다. 이 장점을 살려서 웹3.0 시대를 대비할 겁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이 부주요. 한국도 유시티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관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갖는 정보기술(IT)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오진=어떤 국가에서 구글, 노키아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모르겠디다.
사회=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걱정입니다.
할레=음... 구글의 유튜브가 급부상했던 이유는 기술적이라보다는 사회 트렌드 때문이었습니다. 웹3.0 시대의 핵심은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고 여러가지 지원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IT기업들의 성패는 어떻게 새로운 사용자환경을 만들어 내느냐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 천순애 美 뉴욕시립대 교수

아이에게 처음 언어 가르치듯 온톨로지로 컴에 인공지능 부여

좌담회에서 시맨틱 웹이 거론됐어요. 기술적 기반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시맨틱 웹의 핵심은 온톨로지(ontology)입니다. 시맨틱 웹은 인공지능이 구현된 웹을 말하는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톨로지가 필요합니다. 온톨로지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주는 '연관 관계'를 표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원래 온톨로지는 사물의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적 연구 영역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시맨틱 웹의 데이터베이스(DB)를 근본적으로 다시 꾸밀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새'란 개념과 '납다'라는 개념을 연결시켜 '새=납아다니는 것'이란 그림, 즉 연관관계를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이 온톨로지입니다. 이런 개념을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죠. 현재는 검색엔진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온톨로지가 향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다른 기능에 응용된다면 매우 편리해질 겁니다.
웹의 DB를 재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존의 웹 엔진은 움직이지 않는 '정적' 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하이퍼텍스트 전송언어(HTML)로 꾸며져 있었어요. HTML은 웹1.0 시대를 대변하고 있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non-structured data)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성 생성 언어(XML)는 웹2.0 시대의 특징인데 이것은 질반 정도 구조화된 데이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시맨틱 웹은 이들이 진화한 것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갖고 혼자 이리저리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시맨틱 웹을 웹3.0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웹 서비스에 온톨로지 기술을 적용한 것이 시맨틱 웹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합시다. 경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고 싶다면 현재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일일이 클릭을 하며 찾아야 하죠. 하지만 대법원 웹 DB에 시맨틱 웹 기술을 적용해 특정한 방향으로 재편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색창에 '경제 절차'를 치기만 하면 관련된 페이지로 인도해 주니까요.
온톨로지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온톨로지는 대단히 많은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한 분야에만 온톨로지를 적용하려 해도 그 분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축적해야 하니까요. 또 응용 컴퓨터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기업인들이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디다. 시맨틱 웹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병행 개발 등 특정 업무에 초점을 맞춰 부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고기운 차장(팀장)/이해성/김보라/안상미/이미아/정호중/성선화/박민재/홍경남 기자 dadad@hankyung.com

여의도 증권가의 신화, 유료 세미나 참석자수 전국 1위, VIP회원수익률 업계 1위, 회원재가입 업계 1위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한국증시 주요국대비 강세현상 지속전망, 긴급세미나 개최!!!

"세계증시 조정불구 한국증시 저평가매력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원달러·원엔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로 2005년에 이은 2차 리레이팅 진행중으로 세계 주요국가중 가장 강한 상승세 진행 전망"
-VIP 회원 실제매세지 POSCO 223,500원, 우리금융 17,400원, 대우증권 13,800원, 삼성증권 49,000원, 우리투자증권 18,900원-

중국경제 지속,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우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우려 등 제반악재 노출로 세계증시가 동반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작년과 달리 국내증시가 상대적인 강세현상을 보이는 것은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은 원엔·원달러환율 상승시킴으로서 확실한 경쟁력확보 및 기업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며, 북핵리스크 완화 및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회계투명성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고, 작년 4분기 이후 무조건적인 해외펀드 가입영향은 해외증시 하락으로 조만간 후회하며 되돌아오므로 주요국증시중 한국증시의 상승탄력이 가장 강할 전망이다 1분기중 제반악재의 노출로 일방적인 전망과 달리 2분기중 사상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국민투자연구소 작년 초 모두가 대세상승을 외칠 때 세계 거시지표 불안, 파도타기 전락 및 펀드시대 완전정착, 유량 대형주가 주도하는 Nifty-Fifty장세 진입, 중소형주 비중 축소, 1/17일 1,420P 주식 전락 때도 후 1,300P 매수, 5월 1,450P 전락 때도 후 6월 1,200P 완전대바다 주식 폭매수 후 계속 보유. 지난 강연회 외국시장과 디커플링되었을시 100P, 한달이상 조정없다. 모두가 1,350P ~ 1,390P 박스권 운운하지만 외국인 전면 매수주때 부각 강력한 상승장 온다. 1,360P내외 국민은행, 우리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화재, 현대차, 다음,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주식엔지니어링, 모두투어 적극 매수추천. 지난주 강연회 세계증시 조정은 한국증시에 또다른 기회, 두산중공업, LG필립스LCD, 기업은행, 현대차, 하이닉스, 대우증권, 두산, 동국제강, 모두투어, 신탁, 후성, 휴켄스, 대주산업, 테코스 추천대적중. (선물옵션 작년 6월이후 28선 24승 1무 3패)

금주 강연회 한국증시 해외증시와 차별화시나리오 공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수출주 전면부상분석, 금년 주도업종은 은행·증권·보험·IT업종 특별분석, 금년 주도종목 TOP 10 공개, 개별종목 제한적 강세 전망 유망 개별주 5선 추천. 세계 주요국 펀드가입 특별 상담, 신규투자자 지침, POSCO, 삼성화재, 우리금융, 신한지주, 삼성엔지니어링,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증권, 다음 및 선물·옵션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며 100점이 한눈에, 대한민국 최대인기수백명 참석, 왜 국민투자연구소 설명회에 최대 참석자가 몰리는지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 업계최대인원이 오집한 가운데 펼쳐지는 VIP회원 및 강연회 참석자의 고수의 현장에서 참가비는 1만원이지만 100만원이상 가치의 강연을 생생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무 이경우

- 연세대 사회과학대
- 前 현대증권
- 투자분석 전문

이사 박진형

- 중앙대 컴퓨터학과
- 미국선물중개사(NFA)
- 기업분석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土)

- 일시: 3월 17일(土) 오후 2시~6시
- 장소: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우측구 두 백화점·롯데캐슬 앞 씨티은행 건물)
- 참가비: 1만원 (교재포함) VIP회원 무료
- 주차: 무료
- 강사: 소장 주시경 / 대표 박석화

강남 잠실역 교통회관(日)

- 일시: 3월 18일(日) 오후 2시~6시
- 장소: 잠실교통회관 1층 중강당 (잠실역 2호선8번, 8호선 9번 출구 송파구청 4거리)
- 참가비: 1만원 (교재포함) VIP회원 무료
- 주차: 예약자 무료
- 강사: 소장 주시경 / 대표 박석화

VIP 회원가입 및 상담안내 대표전화: (02) 785-2002, 784-3704, 0994

계좌번호: 국민은행 400437-01-005325 / 예금주: 국민투자연구소 *본 광고의 투자 조언은 투자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장 주시경

- 외국대 경영학과
- 前 한국은행 조서부
- 前 증권사 애널리스트
- 주식·선물 대세 분석 전문가

대표 박석화

- 前 투자자문사 입원
- 기법분석 및 금융주 발굴전문
- 차트 및 기술적분석 전문가

강연회 순서

1부: 14:00 ~ 15:40	2부: 16:00 ~ 17:50
▶참석자 보유종목 진단	▶종합시황
▶차트분석 및 업종별 주도주추천	▶선물, 옵션시황
	▶다음주 추천 종목

정보서비스이용

- 장중 당일시장 주도종목은 08:50-15:50에 추천합니다.
- 추천종목은 종목의 특성(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따라 계속보유, 추가매수, 1/2매도 또는 전량매도 등을 전달합니다.

VIP회원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 항상 고점매수 저점매도를 반복하여 수익률이 시장평균 이하 이신분
- 자영업자 및 직장인, 전업 투자자로서 주도주를 선점하지 못하고 시장흐름을 읽지 못하는 분

VIP회원가입 및 정보이용안내

주식6개월 300만원, 주식3개월 200만원
주식 + 선물, 옵션 3개월 300만원 신한카드 할부가능